남경필식 백골징포

경기도, 다국적기업 오비맥주에 뜬금없는 물값폭탄 p/3

댐법서 면제한 한강사용료 하천법으로 소급

"일단 2년치 12억원 내라" 공문보내 황당징수

양희영, LPGA 혼다 타일랜드 우승 p/22

아반떼 핸들 이상, 미국서 대량 리콜 p/10

대전 평화의소녀상 제막식 대전시와 대전평화의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3·1절인 1일 오후 대전 보라매근린공원에서 '대전 평화의소녀상 제막식'을 열었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소녀상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박 대통령, 중동 순방후 여야대표와 회동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 후 이르면 이달 중순 청와대에서 회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1일 여의도당사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행사에 앞서 대기실에서 잠시 만나 대화를 나눴다"며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중동 순방 이후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문 대표도 김 대표의 제안에 적극 호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전에도 야당을 여러 번 초청했는데 이뤄지지 못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갔다와서 뵙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오케이 하신 것이다. 정리하면 그렇다"며 "김 대표가 먼저 제안하시고 문 대표가 거기에 동조하고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답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 대표에게 경제살리기 법안 등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법안들에 대한 처리 협조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보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달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개편이 완료되고 나면 박 대통령에게 경제와 안보를 의제로 하는 영수회담을 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근이기자 yoonat@

靑 "제2 중동붐, 제2 한강기적으로 만들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등 중동 4개국 순방차 출국했다. 청와대는 이에 맞춰 "역대 최대 규모의 사절단을 구성했다"며 "제2 중동 붐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만들겠다"고 순방 의미를 설명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1차 중동 붐이 제1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 (이번 순방은) 2002년에 시작된 제2 중동 붐이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순방에 따라 나선 경제사절단 규모를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정상외교포털을 통해 상시 모집한 55명을 포함해 총 116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꾸렸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경제 사절단에는 에너지와 건설, 제조업 부문이 각각 13명, 18명, 37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IT(11명), 보건의료(7명), 금융(6명), 무역(8명) 등 다양한 유망업종으로 협력분야가 확대됐다. 또한 경제사절단 116명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59명으로 구성돼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밖에 대기업 30명, 경제단체 13명, 기타 14명이다.

안 수석은 "과거에는 건설, 에너지가 (중동 진출의) 핵심 분야였지만 이제는 순방 4개국 모두 새로운 비전으로 자동차·신재생·항공 등 다양한 제조업과 ICT·교육·보건의료·금융 등 산업다각화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며 "이전 어떤 순방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수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순방 4개국 모두 우리 측 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순방국 상공회의소 공동 주관으로 각국 경제계 대표인사 200~300여 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다. 박 대통령은 1일부터 7박 9일간 중동 4개국을 차례로 방문한 뒤 오는 9일 서울로 돌아온다. /장윤희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은 1일 96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용기 있고 진솔하게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손잡고 미래 50년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꽉 막힌 한일관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았지만 과거사 문제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를 담은 메시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호소가 일본에 먹힐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예비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4월이나 5월께 미국을 방문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의회연설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다. 한일 간 갈등 사이에서 방관 입장을 취하던 미국마저 최근 한국의 문제 제기에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을 적극 지지해 온 국방부는 물론이고 신중한 입장을 지켜 온 국무부까지 기류 변화가 뚜렷하다.

한일 과거사 치킨게임 해법없는 '아버지 유산'

<박정희 전 대통령>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지난달 27일 워싱턴DC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 기조 연설을 통해 "민족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 있고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 뿐 일본의 과거사 도발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비판이다.

셔먼 차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일본과의 대결에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내 정치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평가가 많다. 박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한일수교라는 유산의 공과를 모두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1965년 6월 22일 박 전 대통령은 거센 반대 속에 한일수교를 맺어 산에선을 끌어온 한일 과거사 협상을 매듭지었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돈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일본 돈을 종자로 삼아 산업화에 성공했고 산업화 지지세력은 딸인 박 대통령의 최대 지지세력이 됐다.

하지만 한일수교는 양날의 칼이 됐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일본과의 관계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일본은 한일수교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미 친일 경력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대일외교에서 박 대통령이 물러설 경우 '부녀의 오점'이란 비판이 거셀 것은 불문가지다. 실제 전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조차 "박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아부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친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 움직이기 어렵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올해 들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해 레임덕 위기를 맞고 있다. 박 대통령이 물러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더욱 힘을 얻는 이유다.

아베 총리가 물러설 가능성은 더욱 낮다는 관측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은 국내적인 필요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일관성 있게 보통국가화를 추구해 왔다"며 "아베 총리의 행보는 무엇보다 내부정치용"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박유철 광복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 '한일수교'로 산업화 종잣돈 마련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산업화' 최대 정치자산
한일수교, 일본 '청구권 소멸' 주장 근거
아베 총리 '국대정치용' 의도적 과거사 도발 계속

비슷한 관측이 다양한 대외 채널을 갖춘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중국 방문 중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아베 정부가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올 들어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리고 난 후 소비가 줄어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재정건전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일 간 긴장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의도, 박 대통령의 좁은 입지 등은 동북아 정세와 맞물리면서 오히려 한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우리가 포스트모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동북아는 아직 근대적인 가치체계 속에서 살아 명위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은 아직 분단국가이고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근대국가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3국은 근대적인 가치체계가 선거 등 국내정치에서 동원되기 쉬운 환경에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이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일 갈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경기도, 오비맥주에 하천수 사용료 12억 부과…"조세법률주의 무시"

남경필식 '백골징포'

<죽은 사람에게 세금 부과>

"아프리카 국가도 하지 않는 일을 경기도가 했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오비맥주에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2년치 하천수 사용료 12억여원을 부과한 일을 두고 1일 한 법조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 자체론 문제 삼은 게 아니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말이다.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근대 이후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조세 부과 등 재산권 침해는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한다. '조세법률주의'가 우리 헌법의 중대 원칙으로 자리 잡았을 정도다. 경기도가 오비맥주에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조세법률주의를 무시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경기도는 최근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이 "오비맥주가 지난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 제조에 사용하면서도 36년간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았고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와 여주시는 이를 방치해왔다"고 주장해 '봉이 김선달' 논란이 일자 뒤늦게 오비맥주에 사용료 폭탄을 날렸다. 오비맥주가 이미 납부한 12억여원은 앞으로 내야할 남한강 물 값의 일부다. 오비맥주는 관련규정(지방재정법)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물 값을 더 내야 한다.

오비맥주에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공문을 보낸 곳은 여주시청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경기도가 내렸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하천과 업무담당자는 여주시청을 직접 방문해 "부과징수권자인 여주시청의 업무행정에 착오가 생겼다"며 경기도 고문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결과를 전달했다. 사용료를 부과하라는 내용이었다. 여주시청은 이를 고스란히 공문에 담아 오비맥주에 보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뉴시스

문제점1
상충하는 두 법 중 하나 선택

문제점2
국토부 유권해석 건너뛰어

문제점3
고지서 아닌 공문으로 통보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아왔다. 해당 조항은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득권을 인정해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해 주자는 취지다. 오비맥주는 1979년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다. 충주댐은 1985년 건설됐다. 오비맥주가 사용료를 면제받은 이유다.

경기도는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하천법 37조를 적용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상충하는 두 법률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해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다.

경기도 하천과 담당자는 "법령의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점을 시인하며 "국토교통부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국토부 답신도 없이 사용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다. 이 담당자는 세부적인 근거 규정으로 경기도 조례를 원용했을 뿐이다.

'조세법률주의'는 국가가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자의적인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이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근거를 가져야 한다. 감독기관인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없이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실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5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주시청이 '고지서'가 아닌 '공문'을 통해 사용료를 부과한 점도 지적사항이다. 이 관계자는 "여주시청은 물론이고 사용료를 부과하라고 지침을 내린 경기도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OB맥주는 지난해 세계 최대 맥주회사인 벨기에 AB인베브에 인수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벨기에 다국적기업이 글로벌 기준과는 다른 한국식 법 적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염려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최초 국산전투기 FA-50 편대 3·1절 기념비행 최초의 국산전투기 공군 FA-50 편대가 광복절과 서해대교 상공에서 광복 70주년 3·1절 기념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연합훈련 3월 개시… 한반도 긴장 고조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2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훈련에 돌입한다. 키 리졸브 연습은 13일까지 진행되며 독수리훈련은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된다.

한미는 훈련기간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연합감시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연초부터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훈련 기간에 지난해와 비슷한 무력시위성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하는 등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1일 "대북 감시자산을 증강하고 지상의 대북정보 판단 요원들도 증편했다"며 "훈련 일정을 북측에 통보한 지난달 24일부터 연합감시체계가 강화됐다"고 전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문재인 "김영란법, 2월국회내 반드시 처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당론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월국회는 오는 3일이면 종료되지만 김영란법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 등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론을 확정하지 못해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미세조정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송병형기자

유관순 열사 추모각 참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1절을 앞둔 1일 충남 천안의 유관순열사 추모각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214급 잠수함 6번함은 '유관순함'

해군 창설 70년만에 최초로 '여성 위인'의 이름이 잠수함명으로 제정된다.

해군은 1일 1800톤급 잠수함(214급) 6번함의 함명을 '유관순함'으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올해 광복 70주년과 순국 95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애국심, 선구자적 시대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군 정책회의를 거쳐 함명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유관순 열사(1902~1920)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 4월 1일 아우내 장터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투옥되어 순국한 독립운동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으며 1998년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해군은 그동안 항일 독립운동에 공헌하거나 국가 위기 극복에 기여한 위인의 이름을 214급 잠수함의 함명으로 제정했다. 위인의 이름을 딴 잠수함은 해군을 창설한 초대 해군참모총장인 '손원일함'을 시작으로 정지함, 안중근함, 김좌진함, 윤봉길함이 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인 유관순함은 2015년 4월 말 진수된 후 2016년 11월 해군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유관순함은 대함전·대잠수함전, 공격기뢰부설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적의 핵심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국산 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

/정윤아기자

수류탄 장난감 준 유치원

metro Moscow

불건전 어린이 행사 논란

어린 아이들에게 험악한 무기 장난감을 준 유치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7일 메트로 모스크바에 따르면 자동 소총과 수류탄을 든 채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이들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사진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유치원에서 지난달 23일 조국수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을 올린 알렉세이 골로빈은 "이 사진이 이렇게 큰 논란이 될 줄 생각하지 못했다"며 "유치원에서 조국수호의 날 기념 행사를 사전에 계획했고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동의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진 속 어린이들이 들고 있는 무기는 모형 장난감이라 아이들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모형 무기는 군사애국조직 '붉은 별'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군사애국조직 붉은 별의 부대표 유리 도로즈니스키는 "우리 단체는 행사 당일 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러시아 군대의 조국수호의 날의 기원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모형 무기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단체가 아니다. 유치원 행사가 논란이 되어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러시아 누리꾼들은 "예쁜 장난감도 많은데 왜 하필 살상과 동일한 무기 모형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린이들 손에 무기를 쥐어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까지 동참시키려는 것인가"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나탈리아 게르쉬나 기자·정리=정은희기자

유럽 反이슬람 정서 확산

곳곳서 집회 열려…'테러리즘과 종교자유 구분해야' 반대 의견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만행이 극에 달하면서 유럽의 반이슬람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IS 인질극 동영상에서 유창한 영어로 위협하는 복면의 남성 '지하디 존'이 고등교육을 받은 영국인으로 알려지자 이슬람 반감이 더욱 고조됐다.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에서 시작된 반이슬람 운동단체 '페기다(PEGIDA)'가 지난달 28일 영국까지 진출해 뉴캐슬에서 첫 집회를 열었다. 페기다는 유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 들의 준말로 IS 사태로 촉발된 반이슬람 분위기를 타고 결성됐다.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주의를 내세우는 페기다는 IS의 대표 살해 위협을 받고 독일 시위를 취소한 전력이 있다.

이날 영국 북동부 뉴캐슬에서 열린 페기다 집회에는 375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관용'을 외치며 2000여 명이 참여한 페기다 반대 집회에 비해 열세를 보였다. 페기다 반대 세력은 "테러리스트는 나쁘지만 무슬림까지 몽뚱그려 비난하는 것도 나쁘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두 시위대를 떨어뜨려 놓으려 할 때 충돌이 벌어지긴 했지만 집회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영국 페기다는 공식 SNS를 통해 "이번 행사는 보수 극단주의와 상관없는 단순한 집회"라며 "지하디 존과 같은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길거리에서 추방돼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니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하디 존은 IS 인질극 동영상에 등장한 복면의 남성으로 유창한 영어 솜씨로 국제적 관심을 모았다. 이후 그가 번듯한 학력과 직장 경력을 지닌 영국인으로 밝혀지면서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낳았다.

◆ "무차별적 반이슬람은 위험"

유럽을 뒤덮는 반이슬람 정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페기다가 독일 드레스덴에서 개최한 집회에는 최다 2만5000명이 참여했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열렸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를 입은 프랑스, 도심 한복판에서 유대인 겨냥 총격 사고가 터진 덴마크에서도 이슬람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이 무슬림 전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테러리즘을 종교 일반의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또다른 폭력이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의 종교가 소중한만큼 타인의 종교도 존중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가 남을 모욕하라는 자유는 아니다"고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은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윌리엄 왕세손 일본 방문 일본을 방문 중인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이 1일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인 미야기현을 찾아 향토 사자춤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워런 버핏 후계자 저울질

버크셔 해서웨이 그룹 차기 CEO 양강구도 윤곽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사업가이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후계자 물색에 나섰다. 고령인 그는 자신의 사후 그룹을 이끌 인물로 두 명을 후보에 올려 관심을 모았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CNN 머니와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워런 버핏(85)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50번째 연례 서한을 통해 후계자 선정에 대한 뜻을 밝혔다.

버핏 회장은 "나를 대체할 인물을 낙점했다. 나의 이사진은 차기 CEO가 우리 그룹 최적의 적임자라 판단한다"면서 "내가 죽고 나면 곧바로 승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후계자 이름 언급은 피하면서 "비교적 어린 인물(relatively young)"이라고만 말했다.

버핏 회장이 후계자를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자 버핏의 오랜 친구인 찰리 멍거는 승계 작업이 양강 구도로 진행됨을 암시했다. 멍거 부회장은 버크셔 재보험 CEO 아지트 자인(64)과 버크셔 에너지 CEO 그레고리 아벨(53)을 "세계적 수준(world-class)으로 표현할만큼 능력이 검증된 인물"이라고 지칭했다.

앞서 버핏 회장은 버크셔 해서웨이 그룹을 창립한 1964년부터 연례 서한을 통해 경제와 경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개하고 있다. 그의 연례 서한에는 투자 기업이나 경제 전망이 담겨있어 투자자들의 필독 리포트로 꼽힌다.

/김문희기자 unique@

중국 기준금리 3개월만에 또 인하

정체된 경기 살리기 위해 유동성 강화…인민은행 0.25%포인트 낮춰

중국이 기준금리를 3개월여 만에 다시 인하했다. 빠르게 식고 있는 경제 열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일부터 금융 기관의 위안화 대출과 예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는 5.35%로,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는 2.50%로 각각 낮아졌다. 인민은행은 또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적용 상한을 기준금리의 1.2배에서 1.3배로 확대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5일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기도 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4년만에 최저치인 7.4%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서도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년여 만에 최저치를 보였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3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경기침체)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신화통신은 "인민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준율과 기준금리를 낮추는 등 유동성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국명기자 kmlee@

3월 왕십리·4월 북아현… 재개발 분양대전

"왕십리 소형 투자 5억 마지노선… 센트라스 실입주자에 유리"
분양가상한제 벗어난 북아현 3.3㎡ 당 2000만원은 족히 넘을 듯

서울 재개발 지역인 왕십리와 북아현에서 3월과 4월 연달아 대규모 분양이 예고됐다. 당초 3월에 분양이 몰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북아현뉴타운에 자리 잡은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한 템포 늦추기로 했다.

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북아현뉴타운은 재건축단지 1-2구역에 들어설 아현역 푸르지오는 4월께 분양을 편다. 애초 작년 가을이 목표였으나 올 3월께로 분양시점이 늦춰졌고 시공사와 발주처 간 입장이 관련 협의 일정이 지연되며 4월로 한 차례 더 미뤄지게 됐다.

분양시점이 늦춰진 곳은 또 있다. 인근 1-3구역에서 대림산업은 북아현 e편한세상을 당초 계획보다 한달 정도 늦춘 4월 말 경 분양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점 이후로 분양을 미룬 것과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측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두 단지를 모두 더하면 2524가구로 e편한세상이 전체 1584가구 중 623가구, 푸르지오가 942가구 중 31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자연스레 한 달 앞선 3월, 왕십리뉴타운에서 분양이 진행될 센트라스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분양가가 오를 것인지가 관심이다. 업계에서는 3.3㎡당 2000만원 초반대를 예상했다.

북아현뉴타운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1-2구역(푸르지오)이 1-3구역(e편한세상)보다 모든 평형대 가구에서 2000만~3000만원 정도 낮게 나올 것"이라며 "1-3구역은 단지가 아현역을 끼고 있어 역 이용이 더 쉬운 게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량이 가장 많은 전용 84㎡기준으로 푸르지오가 7억 초반, e편한세상이 7억2000만~7억3000만원이 되지 않을까 본다"며 "특히 e편한세상의 경우 시공사 제시 가격과 조합 제시 가격이 5000만원 가량 차이를 보여 분양가책정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책도 그렇고 이 일대 분위기가 좋은 것은 맞지만 무턱대고 분양가를 올릴 수는 없다"며 "사실 e편한세상이 입지가 더 좋다는 평이다. 대림산업에서 3.3㎡ 당 2200만~2300만원을 불렀다고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낮게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현역 푸르지오는 올 11월 입주 예정이고 e편한세상은 2017년 상반기 완공예정이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이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에 센트라스 아파트 2529가구와 오피스텔 260실 규모의 단지를 선보이며 13일 아파트 1171가구, 오피스텔 245실을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정확한 분양가는 오는 7일 확정되지만 3.3㎡ 당 평균 분양가 1889만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왕십리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기존 평균 분양가 1849만원에서 소폭 올랐는데 시공사와 협의됐다"며 "전용 59㎡ 소형의 경우는 분양가격을 높였고 84㎡와 115㎡ 중대형은 소폭 내렸다"고 밝혔다.

왕십리뉴타운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소형에서만 최초 분양가보다 3.3㎡ 당 100만원 가량 올랐다"며 "전용 59㎡는 5억2000만원, 전용 84㎡는 6억2000만~6억5000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왕십리뉴타운 2구역의 경우 전용 59㎡가 5억1000만원에 분양돼 프리미엄이 1500만원 붙은 것에 반해 1구역은 4억8000만원 분양에 5000만~6000만원 프리미엄이 붙었다"며 "이같은 추세로 볼 때 현재 책정된 3구역 분양가는 다소 높은 편이고 확장비도 별도라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투자자보다 실입주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왕십리와 북아현 재개발구역은 인근 아파트 3.3㎡ 당 평균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고 역세권이라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지역'"이라며 "다만 마포에 위치한 북아현이 직장인들에게는 조금 유리할 수 있는데 충정로를 이용해 시청 등 도심으로, 마포대교를 이용해 여의도까지 생활반경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market index <27일>

코스피	1985.80 (-7.28)	코스닥	624.56 (+7.48)
금리	2.13 (-0.01)	환율	1099.70 (+4.70)

한국공학한림원, 제2롯데월드 안전시공 당부 한국공학한림원은 지난달 27일 오영호 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명이 제2롯데월드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홍보관에서 홍보 영상을 시청한 후 직접 안전모를 착용하고 제2롯데월드 현장을 둘러봤다. /롯데건설 제공

은행 1~2월 주담대출 지난해보다 8배 늘어

국내 7개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액이 연초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외환은행 등 7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1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4431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인 4230억원의 8.2배에 달하는 것으로, 1~2월 증가액으로는 사상 최대다.

1월의 대출 증가액은 9613억원을 기록했다. 1월의 경우 연말 상여금 등으로 대출금을 갚는 사람이 많고 추운 날씨에 이사 수요도 적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1월에도 대출 잔액이 7650억원 감소했다.

2월 증가액은 2조48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봄 이사철 성수기보다도 많은 증가액이다. 지난해 3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조5616억원, 4월은 2조2667억원, 5월은 1조7715억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액이 증가로 올해 가계대출액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말 가계부채 잔액은 전년보다 67조6000억원 증가한 1089조원을 보였다. 반면 지난해 근로자 실질임금 상승률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3%에 불과했다.

/유현희기자 [illegible]

강북 분양아파트에 몰리는 원정투자자

가격 부담 낮고 월세 상품으로 인기

대구 달서구에 살고 있는 이모씨(34·여)는 최근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꿈의숲 SK뷰 전용면적 84㎡를 4억6390만원에 계약했다. 임대수익을 올릴 부동산을 찾다 먼저 이 아파트를 계약한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이 씨는 "대구 부동산시장은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돼 서울에서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강북지역으로 눈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 분양시장에 지방 수요자들의 원정투자가 늘고 있다. 그동안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원정투자를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투자자들도 간혹 있었지만 주로 신도시 분양아파트나 강남 재건축 등에 관심을 보였다. 실수요층이 두터운 강북 신규 분양아파트에 지방의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이 강북 대표 주택가인 월계동에서 공급한 꿈의숲 SK뷰 의 계약자 중 30%가 지방 거주민으로 집계됐다.

서울 월계동 꿈의숲 SK뷰 분양홍보관을 찾는 수요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SK건설 제공

인근 강북구 미아동에 선보인 '꿈의숲 롯데캐슬'도 전체 계약자의 10%가량이 지방 광역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동 정릉 꿈에그린, 중구 만리동 서울역센트럴 자이, 종로구 교남동 경희궁 자이 등 강북지역에서 비슷한 시기 공급됐던 단지들도 지방 거주민의 계약 비율이 5~7%로 파악됐다.

정작 서울에서는 강남권에 밀려 인기가 낮은 강북권이 지방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받는 데는 월세시대의 본격화와 관련이 깊다. 서울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수요가 많은 데다 특히 강북지역은 투자금액은 저렴한 반면 월세이율은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성북구, 종로구, 중구의 전월세 전환율은 7.9%에 달했다. 강북구와 노원구도 각각 7.1%와 7.0%로 강동구, 서초구·송파구(6.7%) 등 강남권보다 높았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강북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분양가는 강남권의 절반 수준인 5억원대에 불과하고, 계약금 2000만~3000만원 정도만 내면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 받아 입주 때까지 자금 부담이 없다"며 "도심권 대학가 인근의 경우 직장인과 학생 수요가 많아 월세 받기가 쉽다는 점에서 지방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지방 부동산 가격은 오를 만큼 올라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수도권에서 저평가된 지역의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쇄인	남궁 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간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5년 9월 20일 창간 [illegible] 서울 [illegible]

카드, 긁지 말고 터치하라

카드사 지불결제, 핀테크 업고 진화

최근 카드사가 근거리 무선통신(NFC)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확대하고 있다. 핀테크로 대변되는 전 세계적인 IT 금융융합 트렌드와 모바일 기술의 성장,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커짐에 따라 카드사의 결제시스템도 진화하고 있는 것.

2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NHN엔터테인먼트와 '핀테크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와 오프라인 간편결제 솔루션 보급 ▲모바일 결제 활성화를 위한 NFC 기반 온·오프라인 인프라 구축 ▲유스(Youth) 고객 대상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연계 스마트 제휴 카드 출시 등 핀테크 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 접촉만으로 결제 OK"… 결제시스템 활성화

하나카드는 모바일 카드를 이용한 결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모바일카드는 스마트폰 USIM칩에 카드를 내려 받아, 일반가맹점에 설치된 NFC결제단말기에 스마트폰을 터치하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 카드는 플라스틱카드가 별도로 필요했으며 앱카드와 달리 구동시간 없이 결제 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만 해도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도 있다. BC카드가 내놓은 '탭사인(Tap Sign)'이 바로 그것.

탭사인은 모바일 쇼핑몰에서 결제시 ISP(mISP) 앱에 등록해 놓은 실물 카드를 본인의 스마트폰 뒷면에 터치 후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내 모바일 결제 솔루션 중 실물 카드를 활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로는 탭 사인이 유일하다.

BC카드 관계자는 "탭사인은 고객이 소지한 실물 신용카드와 스마트폰이라는 금융과 통신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며 "앞으로도 비밀번호 입력만으로도 간편하게 결제하는 페이올(PayAll) 등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앱카드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앞서 신한카드는 대리운전과 꽃배달, 퀵서비스 등을 모바일 앱카드로 주문할 수 있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내놨다. 이는 앱카드에서 직접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앱카드 오더' 방식으로 고객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주문·결제하고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받는다.

앱카드가 인기를 끌자 핀테크와 모바일 편의성을 활용한 서비스도 마련된 셈이다. 실제 지난해 말 신한 앱카드의 회원수는 257만 명으로 연간 취급액 2조원을 돌파했다.

◆ 정보보안-NFC단말기 구축 등 숙제

한편 지불결제 시장에서 다양한 결제시스템과 핀테크가 정착되기까지는 남은 과제도 산적하다. 정보보안과 정부의 규제, NFC방식 결제 단말기 구축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지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해외의 핀테크 산업은 기존 금융업 영역 중 은행과 증권 업체의 사업 영역 전반에 걸쳐 발전하고 있다"며 "선제적 투자와 서비스 혁신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NFC는 일반 지갑내의 신용카드를 휴대폰에 내재화시키면서 기존의 신용카드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신용카드 회사는 기존의 하드카피 개념의 신용카드가 아닌, 신용카드정보만을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도록 하거나 IC칩에 저장해주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기존 비즈니스모델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연구원은 이어 "모바일결제는 기존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시스템을 아우르면서 좀더 복잡한 Value Chain을 형성할 전망"이라며 "카드사는 통신사와 제휴를 통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용카드 가입정보를 휴대폰의 USIM 칩에 저장해 사용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박미은기자 aliver@metroseoul.co.kr

하나은행이 지난달 1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로머니지 '프라이빗 뱅킹 & 자산관리 서베이 2015'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프라이빗뱅크'로 선정됐다. 김병호(가운데) 하나은행장이 상패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 글로벌 PB명가 자리매김한다

英 프라이빗 뱅킹 & 자산관리 서베이 서 최우수

하나은행이 최근 세계적인 금융전문지가 주최한 프라이빗 뱅크(PB, Private Bank)시상식을 잇따라 석권하면서 PB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세계적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지(誌)가 영국 런던에서 주최한 제12회 '프라이빗 뱅킹 & 자산관리 서베이 2015(Private Banking and Wealth Management Survey 2015)'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로 선정됐다. 이번 유로머니 최우수 PB은행 수상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회 연속 수상에 이은 쾌거다.

PB시상식을 주관하는 유로머니誌는 국제금융시장을 대변하는 세계적 권위의 금융전문지다. 매년 철저한 조사와 금융업계 종사자의 의견 등을 분석해 국가별 PB은행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총괄PB서비스 부문 △자산규모별 상위 2개 구간 △자산운용 서비스 △투자은행과의 협업 역량 △일반 상업은행 서비스 △리서치와 자산배분 서비스 △자산승계 서비스 등 총 8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해 10월 더 뱅커(The Banker)/PWM誌로부터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최우수PB은행상(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다양한 고객이 보유한 펀드의 수익률과 위험도를 측정해 환매시점을 알려주고 포트폴리오 배분까지 제공하는 하나포트폴리오 조기진단시스템(HEAD: Hana portfolio Early-Analysis and Diagnosis system) 등 다양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정하성기자

윤종규號, 리딩 금융그룹 도약 '담금질'

국민은행·KB캐피탈 등 계열사 신 시장 공략 박차

KB금융그룹이 윤종규(사진) 회장 취임 100일 만에 국내 리딩 금융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주력 계열사인 국민은행을 필두로 각 계열사들이 신 시장 공략과 영업망 강화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KB국민은행은 연초부터 기업금융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은행은 올초 춘천녹리열병합발전사업' 신디케이트 대출을 주선했다. 특히 이 사업에는 계열사인 K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KB춘천녹색열병합발전시모직펀자산투자신탁(SOC)이 재무투자자로 참여해 프로젝트금융 기법의 우수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어 인천공항철도 매각 입찰에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KB저축은행은 서민맞춤형 상품운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B저축은행은 적립대출라인업 확장을 통해 저소득·저신용자, 기업체 임직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평가등급별 6.5%~19.9%의 금리를 적용, 타 업체보다 경쟁력있는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로 회사 상품인 KB착한누구나대출이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수금융신상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KB캐피탈은 수입차 금융시장에서 선두자리를 굳히고 있다.

지난 2013년 9월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의 공식 전속 금융사로 선정된 KB캐피탈은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며 수입차 금융시장 점유율(M/S) 선두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세로 KB캐피탈의 지난해 자동차 리스실적은 전년 대비 52.9% 증가했다.

가계대출 분야에서는 ▲가전제품, 가구 등 내구재 할부 ▲농촌 거주민을 위한 농기계 할부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휴대폰 유동화 상품 등 필요계층을 위한 사회공익적 금융상품을 출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해 말 리츠를 설립하고 서울역 앞 YTN타워를 매입했다. 이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적극 추진, 업계 최초로 인천도시공사와 인천도화임대주택리츠(4BL)를 설립해 국민주택기금 투자 승인을 받았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도 진행해 동자8지역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리츠도 국민주택기금 투자 승인을 받았다.

KB인베스트먼트와 KB국민카드는 핀테크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K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0월 500억원 규모의 'KB 지식재산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이 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적 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창출을 도와 이들의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카드는 지난 11일 NHN엔터테인먼트와 핀테크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카드는 간편결제 서비스, 온·오프라인 결제 인프라 구축 등 핀테크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KB생명은 영업현장의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FC영업부의 본사조직을 영업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모집질서의 확립과 기존 영업조직의 효율강화, 신규 도입 설계사의 로열티 강화를 위한 육성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이 밖에 KB투자증권은 이달 미국 첨단 IT 기업인 피에스아이 인터내셔널(PSI International inc.)의 한국 증시 상장 대표 주간사로 선정됐다. KB자산운용은 에프엔가이드 기준 이달 공모형 퇴직연금펀드 시장점유율 21.44%로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정부3.0

전국 대학교 총 등록금은 14조 원으로
그 절반인 7조 원을 정부와 대학이 지원합니다.
부모님의 근심을 반으로, 학생들의 꿈은 더 크게!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정부의 재원과
대학의 자체 노력으로
마련한 국가장학금이

2015. 2. 26(목) 9시 ~ 3. 11(수) 18시까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

신청기준 직전 학기 평점 80점 이상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연금 5%이상 지분보유 기업 올해 배당수익률 1.48% 불과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올해 배당 수익률 추정치가 1.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인 영국·이탈리아의 배당 수익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최근 마련하기로 한 배당 확대 관련 지침을 유보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268개사의 지난달 27일 기준 배당 수익률 추정치는 약 1.48%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상장사 배당 수익률 추정치인 1.40%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17개사는 배당수익률 추정치가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LG이노텍은 배당 수익률이 0.06%로 추정됐다. 이어 현대위아(0.45%), 현대그린푸드(0.32%), CJ CGV(0.65%), 삼천리(0.81%), 휠라코리아(0.22%), CJ제일제당(0.65%), 한섬(0.92%), 한세실업(0.56%), SK케미칼(0.47%), 코스맥스비티아이(0.53%), 한솔로지스틱스(0.87%), 코웨이(0.38%), 네이버(0.11%), 현대글로비스(0.66%), CJ오쇼핑(0.96%), 신세계인터내셔날(0.53%)도 1% 미만을 보였다.

국민연금 지분 보유 기업들 중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도 많았다. 전체 267개사 중 동아에스티, 종근당, 대상, 롯데하이마트, 롯데칠성, 롯데푸드, 아세아시멘트, SK이노베이션, SK브로드밴드, LG생명과학, NHN엔터테인먼트, KT, 고려아연, 현대하이스코, CJ대한통운, 대한항공, 한국전력 등 105개사가 무배당 업체다.

현재 국민연금 지분 보유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 규모는 세계 배당수익률 평균 2.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NH투자증권과 톰슨로이터 등에 따르면 영국의 배당 수익률은 3.9%에 달한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각각 3.4%, 3.3%다. 독일(2.9%), 캐나다(2.8%), 미국(1.9%), 일본(1.7%)도 국민연금의 배당 수익률을 웃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배당확대 유도를 준비해왔다. 지난해에 배당기준 수립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내에서 배당 확대 요구가 경영권 간섭이 될 수 있다고 우려,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배당지침 도입은 유보됐다.

/이보라기자

한국증시 3월 훈풍불 듯

중국 금리 인하로 중국계 자금 유입 등 증시 활성화 기대

중국의 금리 인하 등 유동성 확대로 한국 증시에 '훈풍'이 예상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1일부터 1년 만기 위안화 예금 기준금리를 2.5%로, 대출 기준금리를 5.35%로 각각 0.25%p 낮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2012년 5월 이후 33개월 만에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한데 이어 기준금리 인하카드까지 꺼낸 것은 경기 부양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인하로 실질금리가 경제성장과 물가, 취업 등 기본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라는 게 인민은행의 설명이다.

중국 정부가 꺼내든 금리인하는 글로벌 유동성을 확대하며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계 자금이 우리 증시로 흘러들면서 증시를 활성화하고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영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인민은행의 추가적인 통화완화와 정책방향 전환의 재확인은 증시에 호재"라며 "앞으로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이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스 우려 축소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기대감 등으로 코스피 상승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금리인하로 인한 자금 유입까지 점쳐지면서 코스피 상승 전망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금리인하는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물론 한국이 환율 전쟁에서 소외돼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지만, 중국 금리인하로 유입된 자금으로 코스피 지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동성 확대로 수혜 가능성이 큰 대형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동성 확대로 외국인 및 연기금의 순매수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대형주의 수급 여건 개선 여력이 높다"고 말했다.

/이상미기자 sangmi@metroseoul.co.kr

중국이 이달부터 예금 기준금리와 대출 기준금리를 각각 0.25%p 낮추면서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인민은행 전경. /연합뉴스

〈소규모 설명회〉
키움에서 펀드하기
신청기간 ~ 2015년 3월 6일(금)
일 시 3월 9일(월) 오후 6:30 ~ 7:40
장 소 키움파이낸스스퀘어 2층 교육장 (여의도 소재)
키움증권

키움에서 펀드하기 설명회 개최 키움증권은 오는 3월 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여의도 키움파이낸스빌딩 2층 교육장에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키움에서 펀드하기' 설명회를 개최한다. /키움증권 제공

5일부터 IC칩 없는 신용카드 카드대출 제한

오는 5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IC칩이 탑재되지 않는 마그네틱(MS)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ATM에서 카드대출을 받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위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위 조치에 따라 금융사들은 내년 2월까지 ATM에서 카드대출 시 IC방식으로 우선 승인하되 IC칩 손상 등으로 거래 불가할 때에만 MS방식으로 자동 전환해 승인할 예정이다.

이용이 제한되는 신용카드는 카드 앞면에 상하 약 1cm 크기의 금색 또는 은색 IC칩이 없이 뒷면에 검은색 자기띠(MS)만 있는 신용카드다.

다만 금감원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IC카드로 전환하지 못한 일부 MS카드 소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 자동화코너별 1대의 ATM에 대해 MS신용카드 이용을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C카드 전환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금융기관별로 전담 대응반을 운영해 장애와 민원에 신속 대응토록 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IC칩이 없는 신용카드 소지자는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IC신용카드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기준 전체 개인 신용카드의 IC카드 전환율은 98.8%다.

/김현석기자

금감원 Q&A

가족에게 빌려준 카드 피해 발생시 카드사 보상책임은?

Q 아내에게 생활비 지출 용도로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했는데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 약 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카드사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가족이더라도 대여 양도시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분실 도난에 관한 소홀 등 과실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카드사에게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카드를 가족이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회원(카드 발급 신청자)이 가족회원이 사용한 카드 대금 지급과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카드사로부터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회원의 신용에 근거해 발급되기 때문에 가족회원의 신용상태가 낮은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가족회원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통지 태만으로 발생한 손해는 본인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족이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정리=김선국기자 ·자료=금감원

전략 스마트폰 '갤S6' 성공할까

삼성 하드웨어 최고 수준… 소프트웨어 개발 절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가 MWC를 앞두고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모바일 축제 'MWC 2015'에 갤럭시S6를 전면에 내세웠다. 애플의 프리미엄 전략과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핵심 카드인 셈이다. 삼성의 하드웨어는 그동안 업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우수했다. 하지만 애플이 우수한 것은 하드웨어 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가 풍부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힘을 받는다.

◆ 소프트웨어 한계 넘어야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이 절실하다. 업계는 삼성이 소프트웨어 자체개발 없인 구글에 휘둘릴 것이며, 강력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생산 라인을 구축한 애플을 넘어설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하드웨어부분에 있어서는 절대강자로 꼽힌다. 소프트웨어에서는 구글이나 애플 등에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 자체내 모바일 OS인 바다를 공식 발표했지만 지난 2012년 말 바다 OS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대에 그쳤다. 구글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고민 끝에 지난 2013년 2월 바다 OS를 타이젠 OS에 흡수해 운용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공식적으로 바다 OS의 개발은 종료됐다.

그러나 아직도 삼성전자는 타이젠OS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MWC에서 핵심 제품으로 선보이는 갤럭시S6 역시 타이젠OS가 아닌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관심이 하드웨어에 있었다면 최근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성을 두고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시장은 구글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부분에도 더욱 영역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 갤럭시S6 성공 이끌고 저가폰 전략 마련해야

올해 스마트폰 시장 수요는 중저가 제품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선다.

지난달 24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의 추산에 따르면 2016년 보급형 중저가폰(400 달러 약 44만원 이하)의 판매량은 10억7000만대로, 고가폰(4억3000만대)의 2배를 훌쩍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판매량 감소에도 수익성을 지탱해주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갤럭시S6가 그동안 삼성전자 제품을 선호하는 프리미엄 제품 사용자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는 출시후 반응을 지켜봐야한다.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갤럭시S6 티저 영상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단말기는 일체형 배터리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일체형 배터리를 적용할 경우 기존 삼성전자 갤럭시 사용자들의 이탈도 어느정도 예상되고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경우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심하다. 이 때문에 분리형 배터리를 적용한 제품을 선호하는 구매자들이 많다. 특히 애플은 물에 빠지면 쓰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삼성은 가벼운 인수 후 재빨리 꺼내 배터리를 분리하고 드라이기 등으로 말리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바닥에 떨어트릴 경우도 삼성전자만의 커버 분리 등 충격 완화 기술로 파손에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하드웨어 절대강자라는 장점은 극대화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애플보다 월등한 플랫폼 인접수수료 인하 정책 등을 내세워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성훈기자 jpsw@metroseoul.co.kr

KT 앞 '태극기 길' 삼일절을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사옥 주변에 '태극기 길'이 조성돼 있다. 태극기가 많이 게양되지 않은 곳과 달리 KT 사옥과 주변에 태극기들이 수놓아 있어 돋보이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갤럭시로 전 세계 이목 집중

삼성전자가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5'에 맞춰 '올 뉴 갤럭시(ALL NEW GALAXY)' 전략을 선언한다.

'갤럭시S6' 공개가 큰 관심을 끄는 가운데 1일 열리는 언팩 행사는 올 뉴 갤럭시에 걸맞게 형식과 내용 모두 새롭게 진행된다. 이번 언팩 행사에는 관람석을 둘러싼 360도 스크린을 처음 도입해 몰입감을 높이고 영상 효과를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MWC 본행사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구성의 부스를 선보인다. 미디어와 거래선 전용 공간을 70%로 확대하고 참석자의 중요에 따른 전시 공간으로 기획했다. 미디어가 더욱 생생하게 현장을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 체험과 촬영 환경을 구성했다.

삼성전자는 MWC 현장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2일 오전부터 8시간 동안 삼성전자 부스에서 '언팩 못다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온라인 생중계한다.

또 네트워크와 메모리 신기술도 대거 공개한다. 네트워크 사업 전시관을 별도로 마련하고 세계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음성 LTE(VoLTE)등 최신 LTE 기술 제품과 솔루션을 전시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MWC에서 모바일 기업 시장 공략도 지속 강화한다. 4일 '삼성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행사를 열어 삼성전자 모바일 보안 플랫폼 녹스(KNOX)의 최신 버전을 선보일 계획이다. /정성훈기자

LG 드럼세탁기, 미국서 8년 연속 1위

LG전자가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2007년부터 8년 연속 1위 자리에 올랐다.

1일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티븐슨 컴퍼니에 따르면 LG전자는 미국 진출 4년 만인 2007년 브랜드 매출액 기준 처음 정상에 오른 후 지난해까지 8년째 1위를 차지했다. 최근 2년은 시장 점유율 25%를 넘어섰다. 특히 LG전자는 분기 첫 1위를 달성한 2007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총 32분기 중 단 한 차례를 제외한 31분기 동안 정상을 지켰다.

LG전자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혁신적인 기술·디자인, 유통 전략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자평했다. 미국 진출 첫 해인 2003년 DD(Direct Drive)모터를 기반으로 내구성·저진동·대용량을 내세운 드럼세탁기를 선보였다. 이어 2007년 북미시장에 업계 최초로 출시한 스팀 세탁기는 큰 반향을 일으키며 점유율 순위를 4위에서 1위로 끌어 올렸다.

LG전자는 2006년 업계 최초로 세탁기 외관에 레드, 블루 색상을 적용하는 등 디자인 혁신을 주도해 기존에 지하실이나 창고에 두고 쓰던 세탁기를 실내로 옮겨놨다. 2008년에는 대용량 제품에 기존 원형 도어보다 넓은 사각형 도어를 달아 세탁물을 넣고 꺼내기 편리하게 하고 본체와 도어의 연결 부위인 힌지의 내구성도 높였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유통망 확충에도 힘쓰면서 베스트바이, 홈디포, 시어즈, 로스 등 대형 가전 유통업체를 거래선으로 확보했다. 올해는 CES 2015에서 공개한 트윈워시 시스템 세탁기 등으로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한혜진기자 hjuna0404@

삼성SDI, BMW 전기차 배터리공급 확대 전망

삼성SDI가 BMW 신형 전기차에 배터리 공급을 확대할 전망이다.

1일 시장조사기관 IHS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BMW와 지난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내년까지 현 수준보다 최소한 20~30% 늘어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셀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IHS는 삼성SDI가 BMW i3 EV와 i8 PHEV에 이어 BMW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인 X5 PHEV에도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BMW는 신형 전기차로 4륜 구동에 340마력의 최고 출력, 유럽 기준 25km/ℓ의 연비를 갖춘 X5 e드라이브를 올해 내놓을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종류는 내연기관(엔진)이 중심이고 배터리가 보조하는 HEV(하이브리드 전기차)와 내연기관이 있지만 외부에서 플러그를 통해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내연기관 없이 배터리로만 주행하는 EV(전기차)로 나뉜다.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는 2014년 210만대에서 연평균 24% 성장해 2020년에는 770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PHEV는 2014년 10만대에서 2020년 170만대로 17배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SDI는 작년 7월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중장기적으로 BMW그룹에 수조원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정필기자 roman@

5G로 사물인터넷 생활 다가온다

이통 3사 오늘 열리는 MWC서 네트워크 기술 소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세계 최대의 모바일 전시회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이 가져올 사물인터넷(IoT) 생활의 미래를 펼쳐보인다.

이들 3사는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5G를 선도할 네트워크 기술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전시회에서 밀리미터 웨이브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100배 빠른 최대 7.55Gbps의 속도를 선보인다.

또한 노키아 부스에서 4중 안테나 기반 600Mbps 전송 기술과 가상화 기지국(vRAN) 기술을 공동 시연하고, 미국 브로드컴사와는 2배 속도의 LTE-A 펨토셀 기술을 구현해 보인다.

아울러 암호체계와 달리 양자역학적 원리를 활용해 전송 중인 데이터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양자암호통신기술'을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한다.

KT는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밀리미터 웨이브를 시연한다. 이는 5G 핵심기술로, 기존 LTE 주파수 대역보다 높은 28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해 100배 이상 빠른 전송속도를 실현한다.

또한 20MHz 주파수 9개를 묶는 기술인 LTE-B(Beyond)를 삼성전자와 함께 시연하고, 주파수 2개를 묶어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기술도 최초로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노키아와 함께 주파수 간섭을 제어할 수 있는 LTE-A(Advanced) 기술인 '다운링크 콤프 DPS'와 다운로드 속도를 높여주는 '다운링크 256쾀'을 세계 최초로 시연한다.

이 회사는 30GHz~300GHZ의 고주파인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을 활용한 5G 기술도 최초로 선보인다. 이는 고주파 대역에서 1GHz의 넓은 주파수폭을 활용해 최대 50Gbps의 다운로드 속도 제공이 가능하고 하나의 장비에 주파수 송수신 안테나를 16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 데이터 트래픽 수용량을 대폭 증대시킬 수 있다.

세계적인 이동통신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개막을 앞두고 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란비아 전시장 앞, 국내참가업체 KT 직원들과 전시요원에 나선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이 5G를 이용한 사물이동통신 시연을 해보며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큰 IoT 시대가 도래하면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26억개의 기기가 1000억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수십배 빠른 네트워크 전송속도와 기기간 간섭제어가 가능한 다양한 5G 기술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통신사는 이 같은 5G 기반 통신 기술을 사물인터넷(IoT)에 접목해 다양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시한다.

KT는 이동통신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단말기간 직접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5G 기반 D2D(Device to Device)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사이니지(Signage) 모니터로 통해 보여주는 '스마트 쇼 윈도'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또한 자회사 KT뮤직(043610)을 통해 벨캠의 올플레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음악 서비스를 지니 '기가사운드'라는 타이틀로 시연한다.

SK텔레콤은 개방형 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지국 부착 센서로 날씨를 정밀 예측하는 '웨더플래닛', 모임 일정·장소를 조율해주는 사이버 개인 비서 서비스 '에고 에이트(가칭)' 등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스마트 밴드', 난청 보조 기능을 담지한 이어셋 '스마트히어링 에이드' 등의 IoT 라이프웨어를 내놓는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와 함께 주방·거실·서재·드레스룸 등을 갖춘 실제 집처럼 전시관을 꾸미고 관람객에게 다양한 IoT 기기를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이 자리에서 사람의 목소리로 에어컨·조명 등 집안의 주요 가전을 컨트롤할 수 있는 IoT 솔루션 '홈매니저'를 최초로 공개한다.

거울을 보는 것만으로 자신의 피부 타입을 알 수 있는 '매직 미러', 스마트폰을 무전기처럼 쓸 수 있는 'U+ LTE 무전기' 서비스도 주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유선준기자 rusun@metroseoul.co.kr

현대차, '엘란트라' 26만대 리콜

파워스티어링 결함

전세계 자동차 브랜드의 전쟁터로 불리는 미국에서 '리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파워 스티어링 결함으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자동차 26만3000대를 대량 리콜 조치한다.

현대차 북미법인은 28일(현지시간) 파워 스티어링 기능과 관련된 센서 문제로 인해 지난 2006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생산된 '엘란트라'(한국 모델명 '아반떼')와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만들어진 해치백 차량인 '엘란트라 투어링' 등이 리콜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20만5000대, 캐나다에서 판매된 자동차 5만8000대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실제로 결함이 있는 모델은 리콜에 들어가는 26만3000대 중 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NHTSA은 이들 차량에 부착된 센서에서 결함이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 파워 스티어링 기능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대차는 이같은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보고된 차량 사고나 피해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차는 이번 리콜조치를 차량 소유주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무상으로 해당 결함을 모두 수리해주겠다고 말했다.

/차윤주기자 run@

황창규 KT회장, '기가아일랜드' 소개 호평

국제회의서 구축 사례 발표

KT 황창규 회장이 국제회의에서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국내 '기가아일랜드' 구축 사례를 소개해 호평을 받았다.

황 회장은 지난달 27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브로드밴드 위원회' 회의에 참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회발전 방안에 관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주도로 2010년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로 전세계 브로드밴드(광대역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와 디지털 개발 촉진을 지원하는 글로벌 통신 대표 협의체다.

이번 제11차 정기 회의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일 개막하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에 앞서 열렸다. 공동 의장인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과 카를로스 슬림 아메리카 모빌 회장, 공동 부의장인 자오 허우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사무총장,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55명 회원 전원이 참석했다.

신임 브로드밴드 위원으로서 첫 번째 공식 회의에 참석한 황 회장은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브로드밴드 활용 방안'과 관련 지난해 10월 KT가 신안군 임자도에 구축한 '기가아일랜드' 사례를 소개했다.

황 회장은 "기가 LTE와 기가 인터넷 구축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청각 교육이나 원격 화상 멘토링 등이 가능해졌다"면서 "다양한 스마트 에듀(교육) 솔루션 도입으로 실제 섬마을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고취됐고 교사와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유선준기자

삼성, 올해 경북에 '스마트 팩토리' 100개 육성

삼성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올해 경북지역에 100개, 2017년까지 총 400개의 '스마트 팩토리'를 육성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 팩토리는 중소기업의 제조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생산관리 시스템, 사물인터넷 기반 생산 공정 자동화, 지능형 조정·가공 공정 시뮬레이션 기법 등 첨단 제조 기술 노하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삼성과 경북센터는 휴대폰 기구물 사출과 예열가공 업체인 인탑스와 KT Tech를 스마트 팩토리 육성 시범업체로 선정, 3월말 완료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개원한 경북센터는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와 함께 경북지역 노후 제조시설의 첨단화 지원, 신성장 사업 발굴·육성, 전통문화의 산업화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정해련기자 hjung0404@

LG유플러스, 위약금 상한제 실시

LG유플러스는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단 이번 위약금 상한제 적용 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개통한 휴대폰까지 소급적용된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된다.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로, 추후 해지시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LG유플러스는 단말 유통법 시행 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입 당시 요금제로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식스플랜(Six Plan) 시행과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 폐지에 이은 위약금 상한제 시행으로 LG유플러스 고객의 통신비 부담은 한층 더 완화될 전망이다.

/유선준기자

공격적으로 몸값 낮춘 전기자전거

2세대 만도풋루스 아이엠… 1세대보다 160만원 가격↓

만도는 그동안 해외 판매에 주력했던 전기자전거시장이 국내에도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파격적인 가격인하 정책으로 시장공략에 나섰다. 만도의 전기자전거사업은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2010년부터 진두지휘했다. 만도는 올해부터 2세대 전기자전거를 통해 국내시장에 나선다. 아직 국내 시장 성장 속도가 더딘 편이지만 향후 규제가 완화되면 전기자전거가 차세대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도는 지난달 27일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2세대 전기자전거 '만도풋루스 아이엠(Mando Footloose IM)'을 선보였다. 지난 2012년 처음 선보인 만도풋루스는 페달이 페달의 동력을 보조해주는 기존의 하이브리드형 전기자전거와 달리 체인 없이 100% 전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이다.

그러나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탓에 전기자전거 시장 성장 자체가 정체돼 있는 상태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됐던 전기자전거 시장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약 1만5000대에 그쳤다. 이 중 만도풋루스는 지난해 약 1100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자전거로서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판매된 축에 해당되지만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

만도는 이번 신제품의 글로벌 판매 목표는 1세대 판매량을 훨씬 웃도는 3000대 이상으로 잡고 전기자전거 시장의 대중화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보다 접근성을 높인 가격에 다양한 색상과 절고 세련된 디자인의 만도풋루스 아이엠으로 25~35 젊은 세대 공략에 나섰다.

1세대 모델은 447만원이었지만 2세대 모델은 160만원 가량 낮춘 286만원으로 책정됐다. 경쟁사의 160만원대 보급형 제품과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포지션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춰 대중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만도는 신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디자인을 접을 수 있는 폴딩형이 아닌 일체형으로 바꾼 대신 앞바퀴가 분리돼 차량에 실을 수 있게 했다. 배터리는 탈부착식으로 바꿔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됐다.

판로 역시 확대하고 있다. 이재승 만도풋루스 사업실장 전무는 "만도풋루스 아이엠은 직영매장 확대와 롯데·신세계·갤러리아 등 국내 주요 백화점, 고급 편집매장 등으로 판매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인기자 hjung0404@metroseoul.co.kr

/만도 제공

박진수 부회장 "세상에 없던 소재 상용화할 것"

LG화학 박진수(사진) 부회장은 "2018년 세상에 없던 소재들을 가장 먼저 상용화할 것"이라며 "소재로 미래 승부를 건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공장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소재는 석기, 청동기, 철기시대를 구분할 정도로 중요했고, 경쟁력 있는 소재를 가진 집단이 세상을 주도해왔다"며 "LG화학은 미래 시대를 대표할 신소재를 창조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LG화학이 그동안 전기에너지를 충전해 쓰는 배터리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운동에너지, 열에너지 등 세상의 각종 에너지를 활용 가능하게 해주는 소재를 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LG화학은 미래소재 분야를 2020년에는 1조원 이상, 2025년에는 4조원 이상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LG화학은 지난해 말 석유화학·정보전자소재·전지의 3개 사업본부 체제를 기초소재·정보전자소재·전지의 3개 사업본부 및 재료사업부문으로 재편해 소재·재료 분야 경쟁력 강화 의지를 반영했다.

박진수 부회장은 "미래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첨단사업의 성장 폭이 커야 한다"며 "석유화학 부문 비중이 현재 75% 정도인데 2020년에는 60%가 되고, 나머지 40%는 새로운 사업으로 채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소라기자

아시아나항공이 2일부터 웹/모바일 탑승권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공항 카운터에서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짐 없으면 바로 탑승 대한항공·아시아나 오늘 일본노선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일본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 웹·모바일 탑승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2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권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객은 부칠 짐이 없으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는 카운터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국제선 웹·모바일 탑승권 서비스는 일본노선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제선 승객은 인터넷으로 좌석배정 등 탑승수속을 마쳤다고 해도 공항 카운터에서 신원 확인 후 종이탑승권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웹·모바일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할 시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탑승수속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승객이 직접 집이나 사무실에서 출력하거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은 탑승권을 출국장 앞 보안요원에게 여권과 함께 제시하고 탑승권 바코드를 스캔한 후 보안 검색대로 이동하면 된다.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승객의 정보를 항공사와 공항운영자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짐을 부쳐야 할 때는 웹·모바일 체크인 전용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하고 탑승할 수 있다.

단 미주행 항공편은 미국 교통보안청 규정에 따라 기존과 같이 웹 체크인 후 교환증을 출력해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을 예약하고 전자항공권(e-티켓) 구매를 완료한 승객은 비자가 필요 없는 국가로 여행할 때 출발 24시간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웹·모바일 탑승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용할 때는 홈페이지(flyasiana.com)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탑승수속을 마친 뒤 출력한 탑승권이나 스마트폰 탑승권 화면을 공항 출국장에서 보여주면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국제선 웹·모바일 탑승권 서비스 도입에 따라 정보기술(IT)을 선도하는 항공사로서의 인지를 더욱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kboura@

E1, 3월 국내 LPG 공급가격 동결

액화석유가스(LPG) 수입·판매사인 E1은 이달 프로판과 부탄 공급가격을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연료별 ㎏당 가격은 프로판 가정·상업용은 836.8원, 산업용 843.4원, 부탄 1229.0원(ℓ당 717.74원)이다. 국내 LPG 공급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에서 통보한 국제 LPG 가격(CP)을 기반으로 환율과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사측은 "국제 LPG 가격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LPG 공급가격을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용일기자 roman@

LG유플러스, 무제한 LTE데이터 로밍 출시

LG유플러스는 해외에서도 LTE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로밍 서비스를 1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3G 데이터 로밍은 이미 보편화됐지만 LTE 데이터 로밍을 무제한 제공하는 것은 LG유플러스가 처음이다.

기존 LTE 데이터 로밍은 특정 기간 정해진 양만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 스스로 잔여 데이터 사용량을 계산 배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요금은 하루 정액 2만원이며, 서비스 제공 국가는 일본·홍콩·싱가포르 등 3개국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여행객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가운데 LTE망 품질이 비교적 안정적인 곳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향후 서비스 지역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유통업계, 봄맞이 할인행사 봇물

유통업계가 봄을 앞두고 다양한 봄 관련 상품 할인행사를 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오는 15일까지 아웃도어 원단 공급업체 '고어코리아'와 함께 '고어텍스 페어'를 연다. 행사에는 코오롱스포츠, K2,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등 총 18개 아웃도어 브랜드가 참여해 총 200억원어치 물량을 내놓는다. 대표상품은 노스페이스 '고어텍스 디바스 재킷' 38만원, 고어텍스 슈즈 19만원, K2 '유티커브리드 플라이워크' 등이다.

현대백화점은 8일까지 전국 13개 점포에서 '웨딩페어'를 진행한다. 주얼리·가전·가구·식기 등 결혼에 필요한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대규모 행사다. 압구정본점에서는 '주얼리 대전'을 열고 '부쉐론', '부시 에' 등 인기 주얼리 상품을 최대 35% 할인 판매한다. 무역센터점에서는 바세티, 마르띠노 등 인기 침구를 최대 40% 할인해준다.

롯데면세점은 4월16일까지 봄맞이 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외국 유명 브랜드 화장품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500 달러 이상 구매하면 최대 24만원 선불카드 증정 행사를 한다. 1 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동유럽 3개국과 호주 시드니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경품 행사도 연다.

마리오아울렛은 5일까지 삼빈기 공제 시즌을 맞아 면접용 정장 등 남성 브랜드 상품을 최대 90%까지 깎아준다. 행사에는 지이크, 이지오, 지오지아, 본지플로어, 몬스튜디오 등 인기 남성 브랜드가 참여한다. 지이크에서는 최대 80% 할인 행사를 열고 정장과 트렌치코트를 각각 15만원대와 12만원대부터 선보인다. 셔츠와 넥타이는 각각 2만원대부터 살 수 있다.

이마트는 4월 15일까지 황사대전을 열고 공기청정식물 '봄꽃' 모종 등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11일까지 공기정화 식물 30여종을 할인 판매한다.

옥션은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 본격 황사와 미세먼지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김보라기자

농식품 유통전문기업 출범

농협하나로유통 2일 출범식 · 2020년 매출 17조원, 농산물 시장 점유율 15% 목표

농협중앙회의 마트사업 부문인 하나로유통이 협동조합형 농식품 유통전문기업으로 재탄생한다.

농협중앙회는 1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마트사업 부문을 분리, '농협하나로유통'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2일 서울 농협중앙회 건물에서 창립선포식을 연다.

농협하나로유통은 농협의 소비자유통본부와 소관 물류센터 4곳, 유통판매장 23곳, 2584명의 직원을 합친 규모다.

농협중앙회 경제사업부문의 사업량으로 약 33%, 인원 수로는 60%에 해당하는 사업이 통합된다.

농협 경제사업의 마트사업 매출로는 50%에 달하는 규모다.

'농협하나로유통'의 수장은 농협의 농업경제전략본부장인 김연근(59) 대표가 맡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0년까지 농산물 매출 9조원과 시장점유율 15%, 총매출 17조원 달성을 목표로 재인본부 시스템 구축, 농·축협 하나로마트 계열화, 전국 물류네트워크 구축과 신규출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농·축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지도 지원도 계속한다.

이상욱(57·사진)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하나로유통은 협동조합의 장점과 기업체의 장점을 접목한 국내 유일의 조직"이라면서 "물류혁신·구매혁신·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판매농협 구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2일 농협양곡(대표 김병원)도 설립해 농협경제지주로 편입한다. 지난달 28일에는 도매·공판 종묘·식품사업 등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됐다.

농협 경제사업부문의 나머지 공판·가공을 지지하는 자재·유류·연합마케팅 등의 사업과 마트사업부문 계열사인 농협유통·부산경남유통·충북유통·대전유통 등도 2017년까지 농협경제지주로 편입된다.

신경 분리는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해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 따라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2012년 3월 분리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관해야 한다.

한편 농협은 농협하나로유통 창립기념행사로 3일부터 매달 전국 하나로마트 클럽 2000여곳에서 농협 자체상표(PB)상품을 최대 30% 할인판매한다.

/정지은기자 sara.y78@metroseoul.co.kr

홈쇼핑, 올해도 '패션'에 드라이브

패션 업체·디자이너와 협업으로 해외 브랜드 론칭 · 전용 브랜드 잇따라

홈쇼핑업계가 연초부터 패션 상품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 론칭은 물론 패션 업계와 협력해 홈쇼핑 전용브랜드를 선보이며 더 젊고 고급스럽고 스타일리시한 상품 판매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고가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패션업체 한섬과 함께 올 하반기 새 여성 의류 브랜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한섬은 타임, 마인, 시스템 등의 자체 여성복 브랜드와 랑방, 끌로에, 발리 등의 수입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로 홈쇼핑 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홈쇼핑은 오는 4월에는 부산의 패션업체와 손잡고 주류 잡힌 옷을 테마로 한 시리즈 전문 의류 브랜드도 선보인다.

GS샵은 패션 업체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손잡고 홈쇼핑 전용 여성의류 브랜드를 '에디티드(EDITED)'를 론칭했다. 에디티드는 유행에 민감한 30~40대 여성을 겨냥한 브랜드로 디자인과 의류 제작은 신세계인터내셔날이 담당하고 유통은 TV·모바일·인터넷쇼핑몰 등의 판매채널을 운영하는 GS샵이 맡게 된다.

CJ오쇼핑은 스타 듀오 디자이너 스티브제이앤요니피와 손을 잡고 의류 브랜드를 스티브요니스튜디오를 출시했다. 스티브요니스튜디오는 장난스러운 니자인이 돋보이는 키치(kitsch) 콘셉트의 브랜드로 가죽 대남의류·셔츠·트렌치코트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이고 하반기에는 신발 라인도 내놓을 예정이다.

회사 측은 "유행을 선도하는 2030 젊은 고객을 홈쇼핑 시장으로 유입시키고 젊은 패션 감각을 지닌 40대 이상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패션본부 독점 라이선스 브랜드 사업과 11지고르, 질져·폴·르샵·쉬즈미스 등 고급 백화점 브랜드 단독 입점으로 패션 전문 채널로 인지를 다진 롯데홈쇼핑은 올해 젊은 고객층을 유인할 수 있는 샵티, 조르쥬 레쉬·제스포우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론칭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전략상품개발팀을 신설해 홈쇼핑 영업 전략 담당자·패션전문가·PD 등을 배치한 바 있다. 한병석 롯데홈쇼핑 패션부문장은 "지난해 리딩 패션 채널로 거듭나기 위한 기초를 다진 해였다면 올해는 기존 브랜드 집중 육성과 차별화된 신규 브랜드 도입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패션 상품은 홈쇼핑 취급고 중에서도 3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카테고리로 만큼 경쟁 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해 공들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홈쇼핑업계의 패션 상품 강화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bora@

해태제과, 이번엔 허니치즈다!

허니시리즈의 원조 해태제과(대표 신정훈)가 달콤한 아카시아꿀과 크림치즈로 맛을 낸 '구운감자 허니치즈'를 출시했다.

'허니버터칩'과 '허니통통', '허니콘팝'에 이은 또 하나의 허니 제품이다.

'구운감자 허니치즈'는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노하우를 그대로 접목해 만든 달콤한 감자스낵으로 구운감자 제품 특유의 바삭한 식감은 물론 씹을 때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크림치즈와 국내산 아카시아 벌꿀의 풍부한 맛과 향을 그대로 담았다.

특히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븐에서 바삭하게 구워내 일반적으로 스낵이 가지고 있는 느끼한 맛 대신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살렸다. 가격은 24g 800원.

이랜드그룹, 노벨 경제학상 메달 첫 낙찰

이랜드가 세계 최초로 경매에 나와 주목받은 노벨경제학상 메달을 품에 안았다.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네이트 샌더스 경매에 나온 미국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1901~1985)의 노벨경제학상 메달을 낙찰받았다고 1일 밝혔다.

경매품은 1971년 사이먼 쿠즈네츠가 국민소득 이론과 국민소득 통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으로 받은 노벨 경제학상 메달이다. 경매 최조가는 1억 달러(1억6500만 원)다.

우리의 혁명은 숲에서 시작된다
ROBIN HOOD
DAS MUSICAL
로빈훗
2015.1.23 - 3.29 · 디큐브아트센터
유준상 서영주 이건명 홍경수 엄기준 조순창 박진우 박성환 규현 양요섭 서지영 김아선

박순호 전략 통했나… 세정 웰메이드 순항

작년 매출 4500억원 올해 여성복 론칭도

세정이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운 웰메이드가 론칭 2년 여만에 4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며 순항 중이다. 박순호 회장(68·사진)이 애착을 갖고 있던 '인디안' 의 간판을 '웰메이드'로 바꾼 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모양새다.

세정에 따르면 지난해 웰메이드는 4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인디안에서 웰메이드로 전환하기 전인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와 비교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 10% 가량 신장했다. 매장 수는 총 390개로 지난해만 신규 매장 40개를 열었다.

웰메이드는 라이프스타일 패션 전문점의 성격을 강조한 유통 브랜드로 2013년 8월 첫 론칭했다. 지난 1984년 재래시장 도매상에서 대리점 체제로 전환한 후 25년만의 변화다.

편집숍과 같이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라이프스타일 매장이 유통 트렌드로 급부상하면서 인디안 매장을 웰메이드로 바꾸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대신 브랜드 충성 고객을 위해 인디안을 웰메이드 매장 내에서 판매하는 방식을 택했다.

인디안 외에 예리트, 앤섬·피버그린·브루노바피 웰메이드 프로덕트 등을 비롯해 지난해 추가된 베리토리 베리토리골프 두아니까지 총 9개 브랜드가 입점돼 있다.

세정은 올해도 신규 브랜드를 추가하며 웰메이드 사업에 드라이브를 건다. 신규 브랜드는 여성복이다. 중년층이 타깃인 헬성보다 연령대를 낮춰 20~30대를 위한 여성복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인디안으로 굳어진 남성복 위주라는 인상이 강했으나 여성복을 추가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이다.

올해는 신규 출점은 자제하는 대신 카테고리를 강화한다. 세정그룹 전체 올해 매출 목표는 지난해(1조 500억원)보다 300억원 늘어난 1조 300억원이다.

세정 관계자는 "경기 불황 탓에 당분간은 내수시장에 안착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브랜드 포트폴리오 구성을 세분화하고 대형 신규 매장을 열어 라이프스타일 전문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metroseoul.co.kr

세정그룹 매출

웰메이드(2013년 8월 이전은 인디안)

화장품 업계 '립' 전쟁

리퀴드 제형 립스틱 봇물… 틈환에 멀티유즈 인기

화장품 업계가 다양한 제형의 립 메이크업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리퀴드 제형은 물론 최근 트렌드인 멀티 유즈 제품을 내놓으면서 봄 신상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에뛰드하우스, 에스쁘아, 이니스프리 등 아모레퍼시픽 계열의 브랜드숍은 올 봄 리퀴드 제형의 립스틱을 잇따라 출시했다.

에뛰드하우스는 올 초 '컬러인 리퀴드 립스' 를 출시했다. 봄 트렌드 컬러 20가지로 구성된 이 제품은 공식 출시에 앞서 온라인몰에서 프리론칭 당시 일부 색상이 일시 품절되는 등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어 이니스프리도 '리얼 플루이드 루즈' 를 내놓았다. 고발색 컬러 파우더를 함유해 입술에 풍부하고 생생한 컬러를 더해주며 틴트처럼 은은한 발색부터 립스틱처럼 선명한 표현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에스쁘아가 출시한 '쥬뛰르 터치 립 플루이드' 도 리퀴드 타입 제품이다. 쥬뛰르 핏 테크놀로지 기술을 적용해 기존의 리퀴드 립스틱이 지적받는 끈적임과 무게감을 보완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립글로스 제형 번들거리지 않고 립스틱처럼 너무 매트하지 않아 최근 리퀴드 제형을 많이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러셔 다용도 또는 한 제품으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제품도 인기다.

문샷의 크림페인트는 입술은 물론 블러셔와 아이섀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여성용 틴트'라고 불리는 핑크 펀치 색상은 완판돼 재입고를 위해 1차 생산에 들어간 상황이다.

또 메리케이는 립 밤의 보습력, 립글로스의 반짝임, 립스틱의 발색력을 모두 갖춘 올인원 립스틱 '트루 디멘션 쉬어 립스틱'을 출시했다. 슈에무라의 '라끄 슈프림'은 가볍게 한 번 바르면 틴트로, 덧바를수록 선명하게 발색되는 라커로 사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봄이 오면 단연 립 제품이 인기"라며 "봄을 준비하려는 여성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뷰티 브랜드에서는 다양한 제형의 립 메이크업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3월 7일은 참치·삼치데이!" 1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참치·삼치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참치·삼치데이(3/7)를 맞아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40개 점포 및 온라인마트에서 참치·삼치를 연중 최저가격 수준에 판매한다.

편의점 "화이트데이 男心을 잡아라"

편의점 업계가 화이트데이 대목을 앞두고 마케팅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실속형 상품을 늘려 알뜰하게 화이트데이를 보내려는 소비자들을 공략할 계획이다.

씨유(CU)는 실속형 남성 고객을 위해 깔끔한 기프트백(1만4000원) 등 인기 초콜릿 10가지를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BC카드로 14일까지 행사 상품을 사는 고객은 횟수에 상관없이 1만5000원 이상 구매하면 15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인지도가 높은 상품을 전진 배치하고 3000원 미만의 저가 상품 할인 행사와 사탕·캐러멜 2+1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화제를 모았던 '의리 초콜릿' 2탄으로 스티커를 붙인 초콜릿을 판매하고 DIY형 양말인형과 사탕·과자를 넣은 실속 패키지 '그라비아'도 선보인다.

한 대형 편의점이 지난해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직전 2주간(2월 1~14일, 3월 1~14일)의 초콜릿·사탕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화이트데이 고객의 구매 객단가가 밸런타인데이보다 3.3% 가량 높았다. 또 화이트데이 당일 매출은 직전 2주일간 하루평균 매출의 923%까지 치솟아 밸런타인데이(777%)보다 고객이 더 많이 몰렸다. 이는 평소 편의점을 자주 찾는 남성 고객이 화이트데이 당일에 간편하게 상품을 사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수정기자

스킨푸드, 파스텔톤 컬러 네일

스킨푸드가 네일 신제품 '네일 비타 알파 스프링 그리팅 네일'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기존 스킨푸드의 네일비타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스킨푸드만의 네일 제품 노하우를 담아 지속력과 발림성, 광택을 강화한 제품이다. 봄과 어울리는 파스텔톤의 마카롱 컬러로 구성됐다.

이마트, 봄맞이 '원예대전'

이마트는 봄을 맞아 4월 15일까지 원예대전을 열고 공기정화식물, 봄꽃, 씨앗, 모종 등을 저렴한 가격에 내놨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오는 11일까지 공기정화 식물 30여 종을 할인 판매한다. 1개 3000원인 공기정화 식물을 3개 구매 시 7900원에, 5개 구매 시 1만 1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 오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봄꽃 대전을 열고 5종의 봄꽃을 3500~9900원에, 포천난은 7900원에 판매한다.

엘레나가든 평가단 모집

아모제푸드(회장 신희호)에서 운영하는 이탈리안 허브 뷔페 레스토랑 엘레나가든(www.elenagarden.co.kr)은 엘레나가든 평가단인 '줄리' 를 29일까지 모집한다.

봄을 맞아 제철 채소를 활용해 선보인 엘레나가든의 신메뉴 '엘레나 스프링 테이블'을 먹고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 한 후 아모제푸드 홈페이지에 포스팅한 글의 링크를 남기면 된다.

"부패 방지법 제정 온힘"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열려… 12개 단체·104명 포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에서 '제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역사적으로 2월 27일은 조선시대 태종이 억울한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2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선포했다.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것으로 이후 2013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대표적인 권익 구제사례를 모은 감동사례집 등 '국민과 함께 걷다'를 제작·배포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의 ▲고충처리 ▲행정심판 ▲부패방지 ▲제도개선 등 4대 핵심기능별 주요 성과도 발표됐다.

또 기념식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한 기관과 개인을 포상했다. 훈장 5명, 포장 5명 등 12개 단체와 104명이 포상을 받았다. 특히 조영근(57년생) 인천광역시 지방부이사관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관계에 착결에 앞장 선 신희영 광주지방검찰청 검사(35)에게는 대통령표창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수상자와 가족 등 참가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판소리 점검가와 청렴삼총극, 퓨전판의 등 다양한 기념공연도 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올해는 집단갈등 민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집단민원조정법과 우리 사회의 부패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재용 기자 hsnu@metroseoul.co.kr

프리미엄 향 담은 디퓨저·캔들 나왔다

에센시아 카사, 쇼핑몰 오픈 기념 다양한 이벤트

에센시아 카사가 향기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홈메이드 향수 향초와 디퓨저 시장을 겨냥해 코스메틱 최고 등급인 향수 용도의 파인프레그런스 원액을 직접 구매하고 있다. 공급하는 모든 향료는 국제향료협회(IFRA)의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잠금 장치가 있는 고품질 알루미늄 병을 사용해 유통 중 향료의 희석·변질을 완전 차단해 스페인 현지 생산 그대로의 프레그런스를 제공하고 있다.

100% 골든 소이왁스를 이용한 소이캔들과 와인프레그런스를 사용한 디퓨저를 만나볼 수 있다. 순차적으로 향수 룸스프레이 등 향기 관련 제품군과 아로마 테라피용 천연 에센셜 오일을 선보일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 오픈을 기념해 3월 한 달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수정 기자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현장점검 이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역 제조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와 함께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이사장은 공단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기능성·디자인 갖춘 신발 선물하세요

락포트, 신학기 맞이 15일까지 회원 대상 할인 이벤트

스타일로 완성된 편안한 슈즈 브랜드 락포트가 2015 봄·여름 시즌을 맞아 뛰어난 디자인과 기능성을 갖춘 새로운 신제품들을 선보였다.

이번 시즌 '토탈모션 75mm 힐 펌프스'와 깔끔한 누드톤 컬러가 세련된 '토탈모션 75mm 포인트 토 힐 플레인 펌프스'를 내놨다. 안감은 착화 즉시 부드러운 감촉을 느낄 수 있는 폴리에스테르 소재를 썼고 겉감은 양가죽 소재로 마찰을 최소화하며 뛰어난 착화감을 자랑하는 제품이다. 특히 대표적인 기술인 아디프린 & 아디프린플러스를 적용해 발 앞부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증대시켜주며 보행 시 충격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준다.

'토탈모션 75mm 힐 펌프스'는 편안한 데님이나 비즈니스 캐주얼룩으로의 연출이 가능하다. '토탈모션 75mm 포인트 토 힐 플레인 펌프스'는 격식있는 자리에 블랙 수트나 미니멀한 원피스로 세련미를 연출할 수 있다.

'토탈모션 캡 옥스포드'는 다크브라운 컬러의 고급스러운 소가죽 소재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 멋스러운 '토탈모션 캡 옥스포드'는 트렌디한 슈즈를 찾는 젊은 남성들에게 추천된다.

락포트의 남성 제품은 EVA(가볍고 충격 흡수가 우수한 친환경 고분자 물질)소재의 경량 풋베드로 각기 다른 발에도 최적화된 핏을 구현한다. PU(폴리우레탄) 이웃솔 소재로 충격을 흡수하고 열가소성폴리우레탄(TPU) 판을 밑창에 사용해 가벼우면서도 뒤틀림을 방지한다.

한편 락포트는 신학기를 기념해 클럽락포트 기존·신규 회원들에게 3월 15일까지 추가 10% 할인 혜택을 준다. 락포트 코리아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RockportKore)을 '좋아요' 한 후 매장을 방문하면 락포트 슈혼(구둣주걱)을 주는 이벤트도 연다.

/김수정 기자 ksj@5@

강강술래, 보양식 선물세트 증정

한우사골곰탕박스 반값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입고 재가 큰 환절기를 맞아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린 고객들을 위해 보양식 선물세트를 증정하는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 경품이벤트에 받고 싶은 상품과 신청이유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보양식 갈비탕과 육개장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늘봄 갈비탕'은 부드러운 소갈비에 건강에 좋은 인삼과 홍삼을 넣어 맑고 진한 갈비탕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늘봄 육개장'은 얼큰하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소고기 함량이 10%로 푸짐해 든든한 한끼 식사로 좋다.

또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갈비탕선물세트(500g×7팩×4인분)'는 3만9500원에, '육개장선물세트(500g×7팩 14인분)'는 2만90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이 외에 '한우사골곰탕박스(350g×10팩)'도 50% 할인된 3만1500원에 구매 가능하다.

/김수정 기자

중부기술교육원 교육생 추가모집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이 2015학년도 상반기 무료 직업교육생을 추가 모집한다.

대상학과는 '주얼리디자인(야간과정)'과와 '피부계형케어(주간과정)'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 교육생에게는 개인 소모용품을 제외한 교육비와 재료비, 자격검정료 등이 무료로 지원된다.

지원은 홈페이지(www.jbedu.or.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361-5800·120(다산콜센터)

/황재용 기자

착한 몸값·탄탄한 몸매

시승기

쌍용차 SUV '티볼리'

쌍용자동차의 소형SUV(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티볼리(사진)가 최근 시장에서 돌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월 13일 출시한 티볼리는 이미 누적 판매계약 1만대를 돌파했다. 티볼리의 국내 연간 판매 목표인 3만8500대를 불과 한달 보름 남짓에 돌아지은 셈이다. 특히 오는 6월 1일 디젤 모델이 출시되면 티볼리 판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부천까지 왕복 60㎞ 구간을 최고급 모델 티볼리 LX(2347만원)로 시승해봤다. SUV 명가인 쌍용자가 만드는 첫 소형 SUV.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디자인과 가격경쟁력은 차를 타보기 전에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나의 첫 SUV'라는 슬로건처럼 사회 초년생이나 20~30대가 가격 대비 성능 이란 측면에서 인기를 끌만하다.

주행 성능도 세단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1.6L짜리 가솔린 엔진과 6단 변속기를 조합해 최고 126마력을 낸다.

티볼리 디자인은 그동안 쌍용자의 강한 느낌과는 다르게 세련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저 값을 생각하면 고급 수입차 못지 않은 인테리어가 고급스럽다. 6색 클러스터와 스포츠카에 주로 사용되는 D-컷 운전대, 바(Bar) 타입의 센터페시아 버튼은 수입차급이다. 전동시트와 1·2열 열선시트, 3개 주행보드, 듀얼존풀오토에어컨 등은 동급 자동차에서 찾아볼 수 없는 즐거움을 준다.

양쪽 문에 1.5L, 0.[illegible] 등의 병을 각각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센터콘솔에는 10인치 태블릿PC를 넣어 실내 공간 활용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센터페시아의 각종 버튼도 캐딜락 CTS를 연상케 할 정도로 세련미가 넘친다. 주행감각도 소형 SUV치곤 묵직함이 느껴진다. 티볼리는 동급에서 가장 많은 차체의 71.4%에 고장력 강판을 사용했으며 이중 초고장력 강판 비율 역시 동급 최다인 40%에 이른다. 저속 주행에서는 안정감이 든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정속 주행을 할 때도 안정적이다. 150㎞ 이상은 다소 소음이 들려오지만 동급 차량과 비교해서 [illegible] 않았나 [illegible] 등지 전용노로에서 급가속과 감속을 하며 시험주행을 마친 평균 연비는 11.0㎞였다. 복합연비 12.0㎞와 큰 차이가 없었다.

가격은 수동변속기는 1635만원이다. 자동변속기는 사양에 따라 1795만~2347만원이다. 경쟁 차종인 르노삼성 QM3, 한국GM 쉐보레 트랙스, 기아자 쏘울 등의 동급 모델과 비교했을 때 싼 편이다. 많은 차종을 타본 기자도 가격대비 성능을 고려하면 사고 싶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김승용기자 fun@metroseoul.co.kr

현대차 하이브리드 연비왕 선발대회에서 수상한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차, '하이브리드 연비왕'

ℓ당 25.0㎞ 기록

현대자동차(주)가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탁월한 연비를 고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하이브리드 연비왕 선발 이벤트'의 결승전을 2월 28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점과 대리점을 통해 4주에 걸쳐 실시한 시승 이벤트에는 총 5133명의 고객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비는 18.8㎞/ℓ로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공인연비인 17.7㎞/ℓ(17인치 휠 기준)를 웃도는 높은 연비를 기록했다.

2월 28일 실시한 결승전에는 예선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전국 지역별 대표 23명의 고객이 참가해 경춘로 97.5㎞ 구간을 주행하며 연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대차는 ▲연비 25.0㎞/ℓ를 기록해 1등에 선정된 엄종한 고객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주유권 ▲연비 24.6㎞/ℓ로 2등에 선정된 강병수 고객과 이남수 고객에게 상금 300만원 상당의 가족 여행 상품권 ▲3등으로 선정된 10명의 고객에게는 JBL 무선 스피커를 상품으로 증정했다.

한편 2014년 12월 새롭게 출시된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잘 달리는 하이브리드'라는 특성과 높은 연비로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김종훈기자

스포티하고 개성만점 '코란도 C' 익스트림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이유일·www.smotor.com)가 개성적인 매력과 특별한 가치를 선사하는 '코란도 C' 익스트림을 선보이고 전국 영업소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코란도 C 익스트림은 선호도가 높은 RX고급형 모델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별도의 드레스업 튜닝을 하지 않아도 스포티하고 유니크한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과 스포츠카에 주로 사용되는 카본파이버 소재의 아웃사이드 미러, 스포츠 알로이페달이 내외관에 스포티한 감각을 선사한다. 또 강렬한 컬러의 레드 인조가죽시트 패키지가 기본 적용된다. 여기에 18인치 다이아몬드컷팅휠과 LED 클램프가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익스트림 전용 레터링을 적용하여 개성적이고 차별화된 외관을 갖는다.

특히 카본파이버 아웃사이드 미러, 스포츠 알로이페달, 전용 레터링과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은 다른 트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익스트림 모델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2015 코란도 C는 저속토크를 강화한 Dynamic ECO LET 엔진과 아이신(AISIN)사의 6단 자동변속기를 조화, 주행품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한편 마그네슘 진동판을 적용해 선명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사운드 시스템 등 다양한 신규 아이템을 적용했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코란도 C 익스트림의 가격은 2500만원이다. 기존 모델 가격은 트림 별로 ▲KX 2083만원 ▲RX 2415만원~2565만원 ▲DX 2695만원이다.

/김종훈기자

'현대모터스튜디오 전시 스푼 세트' iF디자인상서 금상 수상

현대 모터스튜디오에 전시된 소품이 세계적인 디자인상에서 최초로 금상을 수상하며 브랜드 가치를 인정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현대 모터스튜디오'에 전시하고 있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컬렉션 스푼 세트'가 국제 포럼디자인(International Forum Design)이 주관하는 '2015 iF 디자인상(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의 제품 디자인부문 스포츠레저 디자인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 모터스튜디오는 지난해 5월 개관한 현대차의 새로운 '고객 소통 공간'으로 단순히 자랑을 판매하는 전시장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현대차의 브랜드 방향성이 반영된 예술작품, 현대차만의 콘텐츠, 자동차 전문 도서관, 새로운 고객응대서비스 등이 함께하는 '자동차 문화공간'이다.

금상을 수상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컬렉션 스푼세트'는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반영해 제작한 야외활동용 스푼세트(숟가락, 포크, 나이프)다. 본질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가치를 일상 제품에 담아 고객들이 현대차 브랜드를 느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대차가 함께 출품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컬렉션'은 ▲접이식 의자 ▲컵 ▲텀블러 ▲연필 꽂이로 구성돼 같은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현대 모터스튜디오 아이덴티티' 14종의 브랜딩 출품작은 현대 모터스튜디오의 로고타입과 전용 색상 등을 적용한 ▲쇼핑백 ▲컵 ▲팜카구 ▲명함 등으로 소통 디자인(Communication Design) 부문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현대 모터스튜디오는 총 3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한편 기아차는 '기아 에코컬렉션 앵글 보틀(angle bottle)'을 출품해 iF 디자인상에서 제품 디자인 부문 가정용품·식기류 디자인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기아 에코컬렉션-앵글 보틀은 옥수수전분을 사용해 자연분해 되는 친환경 제품으로 운전시 시야를 가리지 않고 음료를 편히 마실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김종훈기자

metro entertainment

'척'하지 않는 연기에 힘썼다

'강남1970' '펀치' 2연타 흥행 **김래원**

배우 김래원(34)이 '입금 전 김래원'이라는 연관검색어를 지인들과 공유했다. '입금 전 김래원'은 작품을 시작하기 전 김래원의 살찐 모습을 의미한다. 그는 지난달 17일 종영된 SBS 드라마 '펀치'에서 시한부 삶을 사는 박정환을 연기했다. 뇌종양을 앓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체중 감량을 불사했다.

"(연관검색어) 재미있더라고요. 지인들과 하는 비공개 SNS에 공유했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젠 그런 연관 검색어에 신경 쓰지 않아요. (웃음) 살 찔까 봐 다이어트한 게 아니라 부을까봐 안 먹었어요. 잘 붓는 체질이거든요. '펀치' 5회에 이태준(조재현)과 영상으로 자장면을 먹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장면을 다 먹고 차를 마시는데 잘 보면 제 눈이 부어있을 거예요. 차 마시는 장면은 자장면 먹은 다음 날 찍었거든요."

실쪘던 '입금 전 김래원' 연관 검색어 재미있어
데뷔 18년 슬럼프 NO! 예능 센스는 없거든요

김래원에게 2015년은 특별하다. 올초 개봉된 영화 '강남1970', 드라마 '펀치'를 통해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줬다. 진지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보여졌으나 정작 그는 '펀치' 섭외가 들어왔을 때 반신반의했다.

"'펀치'에 출연하기 보다는 밝은 역할을 하고 싶었죠. '강남1970'에서도 무겁고 진정성있는 역할을 했는데 또 무거우면 지칠 거 같았거든요. 그러다 한참 뒤 소속사에서 설득을 했고 '펀치' 이명우 감독의 직접 제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작품마다 인연이 있는 거죠.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영화도 대단한 흥행은 아니지만 잘 돼서 기분이 좋아요. 작년에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드라마에서 깊은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조재현과의 [illegible] 수 없는 진한 우정도 화제였다.

"전에는 슬픈 감정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슬프다' 수준이 아닌 '재 진짜 미치겠나 보다'라고 느껴지도록 했죠. 박정환은 저보다 훨씬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안 멋있게 연기했죠. '척'으로 보일까 봐요. 조재현과 연기하는 건 편했어요. 형은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대본을 일부러 안 외워오거든요. 저도 준비하지 않은지 7~8년 됐어요. 장단점이 있지만 안 외우면 더 신선하게 연기하게 돼요. 표정이나 말투를 촬영하면서 나오는 대로 하죠. 조재현과는 대사 한 마디 눈빛 하나로도 통했죠."

과거 쪽대본 때문에 영화 위주로 활동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정말 힘들 때 든 생각이었다. 1년 동안 영화를 하다가 드라마를 찍으니까 당황했었다"며 "예전에는 대본이 늦게 나와도 순발력 있게 연기 했는데 지금은 감정을 쫓아가지 못하는 내가 부족한 거 같다"고 자평했다.

"몇 년 전부터 뭔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변했어요. 어떤 분들은 서른이 넘으면서 남성적인 느낌이 난다고 해요. 절제된 모습일 수도 있죠. 더 여유가 생겼어요. 데뷔 18년 동안 슬럼프를 느낀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하던 대로 똑같이 할 거예요. 차기작으로는 옥탑방 고양이 같은 로맨틱 코미디도 염두하고 있어요. 영화 시나리오를 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능프로그램은 저랑 안 맞아요. (웃음) 예능 쪽 센스가 없거든요."

/전효진 기자 jeonhj@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정선주) 디자인/

star bag

이달 말 현역 군입대

배우 **최진혁**이 이달 31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 소속사 레드브릭하우스 측은 "어디로 입대하는지 본인이 밝히고 싶어하지 않아 비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진혁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자신의 팬미팅에서 직접 입영 통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잘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새침데기로 첫 성인 연기

신예 배우 **이열음**이 SBS 새 주말극 '이혼변호사는 연애중'에 출연한다.

이열음은 극중 변호사 무소 선택의 막내 서무로 새침데기지만 귀여운 매력을 지닌 우유미 역을 맡았다. 데뷔 후 첫 성인연기 도전으로 여고생에서 벗어나 한층 성숙한 연기력을 펼칠 예정이다. 3월 방영 예정.

뺑소니범 잡아 감사장

보컬그룹 스윗소로우의 리더 **인호진**이 음주 뺑소니범을 잡은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소속사 뮤직앤뉴는 인호진이 매니저 김성현 실장, 김인호 팀장과 함께 음주 뺑소니범을 추격해 붙잡은 뒤 경찰에 인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서초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태프 위해 야식차 선물

KBS2 금요드라마 '스파이'에 출연 중인 배우 **고성희**가 현장 스태프들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 야식차를 준비했다.

스파이 외 한 현장 스태프는 "극중 윤진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고성희가 있기에 항상 촬영 현장이 즐겁다"며 "스태프를 챙기는 살뜰함에 비 오는 날 촬영도 거뜬하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카데미 수상작 한국서 통할까?

'이미테이션 게임' 기대 이상 선전…'버드맨' '위플래쉬' 개봉 준비

할리우드 최고의 영화상인 아카데미 시상식이 지난달 23일(한국시간) 제87회 행사를 마쳤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버드맨'이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해 4관왕에 오르며 올해 시상식 주인공이 됐다. 영화 팬의 관심은 이제 수상작의 국내 개봉에 모아지고 있다.

아카데미 수상작은 화제성에 비해 한국 내 흥행 성적은 저조한 경우가 많았다. 대중성 오락성을 내세운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작품성 있는 영화가 아카데미의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개봉한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 중 100만 관객을 넘은 것은 2009년 제81회 수상작인 '슬럼독 밀리어네어'(112만)가 유일하다. 지난해 작품상 수상작인 '노예 12년'은 45만 관객을 모으는데 그쳤을 뿐이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작품성 중심의 할리우드 영화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아트버스터' 열풍을 일으켰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과 '보이후드'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각 미술상·의상상·분장상·음악상과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을 수상한 '이미테이션 게임'이 지난달 10일 국내 개봉 이후 예상 밖의 흥행 성적을 기록 중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해독 불가능으로 여겨진 독일군의 암호를 풀어 역사를 바꾼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의 실화를 그린 영화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베네딕트 컴버배치, 키이라 나이틀리 등 배우들의 열연으로 지난달 28일까지 113만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인공인 '버드맨'과 남우조연상·음향믹싱상을 수상한 '위플래쉬'가 각각 5일과 12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순수의 시대', '살인의뢰' 등 한국영화와 같은 날 개봉하지만 전혀 다른 장르와 주제의 작품인 만큼 흥행 경쟁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버드맨'은 한국 김치를 비하하는 뜻의 대사가 등장한다는 사실로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러나 개봉 전 시사회를 통해 영상미에 대한 호평이 나오고 있는 만큼 흥행 여부는 개봉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회와 기획전을 통해 관객과 먼저 만난 '위플래쉬'도 입소문을 타고 있어 흥행 성적에 관심이 모아진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대세' 변요한 의미있는 재능기부

'빅이슈' 표지 모델

배우 변요한이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빅이슈' 화보로 재능 기부에 동참했다.

1일 빅이슈 코리아 측은 변요한이 '빅이슈' 3월호 표지 모델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보 촬영에서 변요한은 장난기 가득한 모습과 진지한 모습을 오가며 팔색조 매력을 뽐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변요한은 촬영 내내 웃음을 잃지 않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화보 촬영과 함께 '쏟아지다'라는 주제로 인터뷰도 진행됐다. 변요한은 인터뷰를 통해 연기에 쏟았던 열정과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찬사, 앞으로 쏟아질 스포트라이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했다. '빅이슈'는 판매액의 절반이 홈리스 출신 판매원의 수입이 되는 잡지다.

한편 변요한은 오는 12일 개봉 예정인 영화 '소셜포비아'로 극장가를 찾는다. /장병호기자

'킹스맨' 청불 외화 흥행 신기록

개봉 18일 만에 300만 돌파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이하 '킹스맨')가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청소년 관람불가 외화 사상 최고 흥행작이 됐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킹스맨'은 개봉 18일째인 지난달 28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302만4969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킹스맨'은 2007년 개봉한 '300'이 세운 청소년 관람불가 외화 흥행 스코어(292만)를 뛰어넘게 됐다.

지난달 11일 개봉한 '킹스맨'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이하 '조선명탐정2')과 함께 박스오피스를 장악하며 흥행을 이끌어 왔다. 개봉 2주차에는 '조선명탐정2'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라 식지 않는 인기를 증명했다.

'킹스맨'은 루저로 낙인 찍혔던 청년 에그시(태런 에저튼)가 비밀 첩보요원 킹스맨이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첩보 액션영화다. 28일 토요일 하루 동안에도 25만2363명의 관객을 모아 누적 관객수 314만을 기록하고 있다. 인기에 힘입어 IMAX 극장 개봉까지 확정된 만큼 '킹스맨'의 흥행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장병호기자

온라인 핫 이슈

안재욱·최현주 "5월 결혼? 사실 무근"

배우 안재욱이 최현주와의 5월 결혼설을 부인했다.

안재욱의 소속사 측은 지난달 28일 "최현주와의 결혼식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이 잘 만나고 있는 건 맞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처럼 5월 결혼식을 올릴 예식장을 잡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오전 안재욱과 최현주가 오는 5월 초 서울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에서 황태자 루돌프와 마리 베체라 역을 맡아 연인 호흡을 맞추며 인연을 맺었다. 지난달 공개 연애를 선언해 주목받았다. /전효진기자

크레용팝 초아 '덕혜옹주' 변신

뮤지컬 나들이 1인2역

그룹 크레용팝 초아가 뮤지컬 '덕혜옹주'를 통해 1인 2역을 소화한다.

초아는 '덕혜옹주'에서 엄마 덕혜와 딸 정혜 역을 동시에 연기한다. 덕혜의 삶이 정혜로 대물림 되는 모습을 표현할 예정이다.

특히 더블 캐스팅된 문혜영은 '덕혜옹주' 극본을 직접 집필했다. 2013년 선정된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 우수작품 제작지원작이다. '덕혜옹주'는 통해 관객을 역사 속으로 안내하며 창작 뮤지컬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뮤지컬 '덕혜옹주'의 초아(오른쪽)와 김준경. /컴퍼니아이콘 제공

초아는 현재 서울예술대학 연기과에 재학 중이다. 평소 뮤지컬 배우를 열망하고 있었으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각오다.

'덕혜옹주'는 조국과 가족에게 버림 받았지만 모든 걸 잊지 않으려는 덕혜, 그리고 일본인 남편, 딸의 고뇌와 사랑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한다.

4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대학로 SH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전효진기자 jeonhj@

빠진 치아 얼굴형 망친다

임플란트 등 인공치아로 대체해야

사고나 질환으로 치아가 빠졌음에도 치과 치료를 미루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빠진 치아를 방치하면 음식을 먹거나 소화를 하는 데만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형까지 망칠 수 있다.

치아가 빠지면 빠진 쪽으로는 음식을 씹기 어렵다. 이로 인해 빠진 치아의 반대쪽으로만 씹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씹는 방향의 턱 근육이 발달하게 된다. 반면 반대편에 있는 턱 근육은 씹는 활동이 줄어 상대적으로 수축된다. 이런 경우 안면 균형이 비대칭으로 변해 얼굴형을 망칠 수 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아래턱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으며 입을 다문 경우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제대로 맞지 않게 되는 환자도 있다.

특히 치아가 여러 개 빠진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여러 개의 치아가 빠진 경우 잇몸뼈가 퇴축하는 범위가 넓고 그 속도가 빨라진다. 게다가 잇몸뼈가 퇴축되면서 입술과 볼이 오므라지게 되며 볼이 움푹 들어가 얼굴선에 지장을 준다.

아울러 빠진 치아는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턱관절은 귀 앞 부위에서 아래턱뼈와 머리뼈가 만나 이루는 관절인데 여기에 장애가 생기면 입을 열고 닫을 때 턱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이 생긴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입을 제대로 벌릴 수 없게 되고 목이나 어깨의 통증과 만성 두통 등 다양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혁빈 신촌다인치과 대표원장은 "빠진 치아로 인한 얼굴형의 변화나 턱관절 장애를 막기 위해서는 인공치아를 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은 임플란트로 구강과 잇몸뼈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발기부전 치료제 '2차 대전'

9월 특허 만료 '시알리스' 복제약 잇따라 허가

비아그라(성분명 실데나필시트르산염)에 이어 발기부전 치료제 2차 대전이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릴리 시알리스(성분명 타다라필)의 9월 특허 만료를 앞두고 국내 제약사들이 시알리스의 제네릭 의약품(복제 의약품)을 잇따라 허가받았다.

지난해 한미약품의 '다달정'이 복제 의약품 중 최초로 허가됐으며 올해 들어 ▲예피롱정(삼진제약) ▲바로타다정(신풍제약) ▲자이리스정(동구바이오제약) 등 총 3개의 의약품이 허가를 마쳤다.

게다가 지난해에만 타다라필 성분의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승인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이 23건에 달한다. 특히 대웅제약과 일동제약, 공동제약과 유한양행 등 국내 대형 제약사들도 복제 의약품을 개발해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름 형태로 개발된 씨티씨바이오의 '리드메인'과 서울제약의 '불티움'까지 가세해 발기부전 치료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이들 제품들은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비아그라 등 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제품군과 타다라필 성분의 의약품 간의 경쟁도 심해지면서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 또 한 차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서는 부동의 1위였던 비아그라의 특허 만료 후 복제 의약품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점유율이 분산됐고 이 틈을 타 시알리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복제 의약품인 '팔팔정'이 현재 시알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이며 매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팔팔정이 1위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알리스의 복제 의약품이 출시되면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metroseoul.co.kr

착한 걸음 6분 걷기 함께 걸어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그룹의 희귀질환사업 부문인 젠자임 코리아가 지난달 28일 '세계 희귀질환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착한걸음 6분 걷기 캠페인'을 벌였다. 1037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6522분의 걷기 시간이 달성됐으며 젠자임은 참가자들의 이름으로 희귀질환 환우에게 후원금 15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류마티스 질환 의료 정책 토론회 열려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고은미)는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류마티스 질환 진료 질 향상 방안을 위한 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류마티스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과 지원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류마티스학회 회원과 류마티스관절염 환우회, 그리고 정부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의료 질 향상 정책의 국내외 동향(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류마티스 진료 질 현황과 향상 방안(박한주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이사)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또 심승철 대한류마티스학회 홍보이사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상일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학회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질 향상 개선에 대한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한다. 국내 류마티스 환자의 진료의 질과 지역 간 진료 질 격차 등 근거 자료를 통해 환자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수면 부족, 안구건조증 악화 원인"

수면이 부족하면 안구건조증이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영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안과 교수팀은 수면 부족이 눈물 오스몰농도(용액 1ℓ에 함유된 용질의 이온화수)를 높이고 눈물막 파괴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눈물 분비량을 감소시켜 안구건조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고 밝혔다.

신 교수팀은 수면 부족이 눈물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안질환이 없는 20~30대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10명은 8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 후, 나머지 10명은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눈물 오스몰농도와 눈물막 파괴시간 등을 측정해 비교했다.

비교 결과 오전 6시에 검사한 결과에서는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은 그룹이 8시간 수면을 취한 그룹에 비해 눈물 오스몰농도가 높았고 눈물막 파괴시간도 짧았으며 눈물 분비량 역시 현저히 감소됐다.

신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수면 부족이 안구표면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안구표면질환자의 경우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구건조증은 눈물 생성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빨리 말라 눈이 불편해지는 질환이다. /황재용기자

인사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신규임용 ▲ 광주인력개발원장 정순호 ▲ 전북인력개발원장 최민[illegible] 전보 ▲ 인천인력개발원장 라연강 ▲ 충북인력개발원장 황윤희 ▲ HR사업실장 김혜진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본부장 실장 승진 ▲ 에너지소재공정연구본부장 강득국 ▲ 성과확산본부장 김종국 ▲ 대외협력정책본부장 주현규 ▲ 열에너지변환연구실장 곽명진 ▲ 분리연구실장 노남선 ◇보직 변경 ▲ 기획조정본부장 김창희 ▲ 경영지원본부장 엄규복 ▲ 운영관리실장 안경무 ▲ 기획실장 김종보 ▲ 예산실장 박종선 ▲ 사업관리실장 마석락 ▲ 지식재보실장 최연희 ▲ 인력운영실장 송욱진 ▲ 총무복지실장 장우진 ▲ 회계재무실장 서범철 ▲ 구매자산실장 유학무 ▲ 시설운영실장 김석찬 ▲ 안전관리과장 허명진
■ 대한주택보증
◇ 부서장 승진 ▲ 홍보비서실장 채종원 ▲ PF금융센터장 곽대윤 ▲ 대구경북지사장 주덕홍 ▲ 채무관리센터장 허선재 ◇ 부서장 전보 ▲ 감사감독실장 곽경선 ▲ 인사처장 이진용 ▲ 심사관리처장 곽석제 ▲ 서울북부지사장 심상권 ▲ 서울동부지사장 권기 ▲ 서울남부지사장 오병택 ▲ 경주전남지사장 오승택 ▲ 서울서부관리센터장 이광기
● 고려대학교
◇ 교원 보직 ▲ 세종부총장 조동연 ▲ 미래전략실장 마동훈 ▲ 기획예산처장 겸 김사실장 신현석 ▲ 교무처장 박단현 ▲ 학생처장 신지영 ▲ 총무처장 최동준 ▲ 관리처장 서윤호 ▲ 대외협력처장 겸 기금기획본부장 유병현 ▲ 정보전산처장 김규태 ▲ 연구처장 송태준 ▲ 입학처장 김재욱 ▲ 국제처장 김선혁 ▲ 기획처장 어지우 ▲ 교학처장 김태곤 ▲ 사무처장 이정가 ▲ 인력홍보처장 김효진 ▲ 산학협력단장 고계상 ▲ 연구기획본부장 김윤찬 ◇ 직원 부장인사 ▲ 비서실장 김영임 ▲ 학술정보관리부장 겸 학술연구지원부장 송병국 ▲ 과학정보관리부장 김현선 ▲ 산학협력단 경영지원부장 겸 기술사업부장 윤상훈 ▲ 국제처 부-국제대학원학사지원부장 최원진

부고

▲ 권정석(전 경북도교육위원회) 씨 별세, 권영문(영일씨 부친상, 이정무 사인) 홍종식(신세계그룹 상무)씨 장인상 = 1일 오전, 경북 안동의료원 2층 특실, 발인 3일 오전 8시 010-9557-9480
▲ 최재남 씨 별세, 이대일(전 동아대 총장) 씨 모친상, 이재황(서울대 교수) 씨 조모상, 김성은 고려대 교수 씨 시조모상 = 28일 오전 9시 25분,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2일 오전 8시. 051)256-7013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확대

전국 190개교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한 등록금 분할납부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전국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 334곳의 분할납부 활성화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251개교의 76%인 190개교(국공립 32개·사립 158개)가 등록금 고지서에 분할납부 방식을 명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등록금 고지서에 ▲납부기간 ▲납부방식(일시 카드 분할 등)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납부횟수 확대 등 6개를 필수항목으로 명시토록 했다.

이에 ▲건국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한양대 ▲홍익대 등 다수의 대학교가 등록금 고지서에 6개 항목을 모두 담았다. 또 이번 조사에 응답한 대학교 중 65%인 162개교는 장학금 지급자에 대한 분할납부 이용 제한 등을 폐지하고 이를 등록금 고지서에 표시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대학은 181개교(72%)로 조사됐으며 올해 2학기부터는 229개교(91%) 이상이 분할납부 시스템을 완비할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등록금 고지서에 분할납부제 방식이 명시된 만큼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등록금 분할납부제도가 대학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대학교의 등록금 분할납부 결과는 오는 4월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집계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신학기에는 전국 대학교의 15%가량이 등록금을 인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지난달 23일까지 잠정 집계한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 310개교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261개교(84%)는 등록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고 48개교(15%)는 인하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화성 총기사건 이강석 경정 영결식 엄수 지난달 27일 화성 주택가 총기 사건 현장에서 순직한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장 이강석 경감의 영결식이 1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진행됐다. /연합뉴스

올해 무상급식 학교 첫 감소

무상급식을 하는 초·중·고교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줄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년도 연도·학급·시도 시군구별 무상급식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늘어나던 무상급식 시행 학교가 올해 학교 수와 비율에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초·중·고교는 전체 1만1573곳 중에서 7806곳(67.4%)이다. 지난해 전체 1만1483개 학교 가운데 8351개(72.7%) 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던 것과 비교하면 5.3%포인트 줄어졌다. 특히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상급식 학교가 급격히 증가한 후 올해 첫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 2014~2015년도 무상급식 학교 비율 감소 추이를 학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94.1%→87.3%, 중학교는 76.3%→72.2%, 고등학교는 13.3%→10.1%로 하락했다. 특히 경상남도가 4월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키로 해 무상급식 학교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정기자 hyi@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긴급복지지원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의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96만원(최저생계비 120% 이하), 의료 주거 교육지원은 4인 기준 245만원(150% 이하)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모두 309만원(최저생계비 185% 이하)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아동인 경우 등 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1개월 1회에 한해 선지원이 가능토록 자료 제출의 예외 사항도 구체화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과 절차, 계좌 이체가 불가피한 사유와 현금으로 지급할 근거 등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생계형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빠르게 발굴하기 위한 위기 사유의 기준도 명시되고 대상자 발견·신고자 범위도 확대된다. /황재용기자

친일재산 환수 10년만에 마무리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사업이 착수 10년만인 올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96건 중 94건이 확정됐으며 남은 2건은 1·2심 판결이 내려진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계류 중인 2건의 재판이 올해 안에 확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한 건은 국가소송이고 다른 한 건은 행정소송인데 모두 1·2심에서 정부가 승소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하급심 판결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06년 7월부터 4년간 활동하며 찾아낸 168명의 친일행위자 재산 2359필지(1000억원 상당)와 제3자에게 처분한 116필지(267억원 상당)에 대한 환수 작업이 올해 안에 모두 끝나게 된다.

다만 올해 재산 환수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더라도 유사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환수 대상으로 찾아낸 재산 외에 또 다른 친일재산이 발견된다면 이를 환수하기 위한 별도의 소송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확정된 소송 94건 중 정부는 91건에서 이겨 전체 승소율 97%를 기록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1919년 그날을 기억하며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바리맨' 뿌리 뽑는다

경찰 검거 전담반 구성… 성범죄 전력자 구속수사

경찰이 학교 주변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걷어붙였다.

경찰청은 바바리맨을 비롯한 학생안전 위해세력을 대상으로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의 탐문과 성폭력 신고 내용의 분석을 통해 바바리맨이 상습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바바리맨 출몰지역의 관할 경찰서에서 여청수사팀과 학교전담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검거전담반을 운영하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성폭력특별수사대 내 관리전담 인원을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바바리맨에게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고 성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경범죄의 과다노출에 해당돼 처벌이 범칙금 부과에 그쳤지만 앞으로 형법 적용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교육부나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1km 내 성폭력 전과자 거주 현황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전과자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는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현정기자

강남대로 금연거리 555m 연장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6번 출구 934m 구간의 금연거리가 더 늘어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강남역 3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보행로 555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구간은 총 1489m로 연장됐다. 또 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5년 6월 1일부터 이 구간을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이에 더해 오는 4월부터 사당 교대 서초 고속터미널역 등 구내 모든 지하철역 출구 10m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금연거리에서 흡연을 하다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면 구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조현정기자

김보경 15개월만에 부활포 쏘다

3경기 연속 풀타임 위건서 입지 다져…기성용·손흥민 풀타임 활약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위건 애슬레틱에서 뛰는 김보경(작은 사진)이 약 1년 3개월 만에 골을 넣었다.

김보경은 1일(한국시간) 영국 블랙풀의 블룸필드 로드 경기장에서 열린 블랙풀과의 2014~2015 챔피언십 3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0으로 팽팽히 맞서던 전반 48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카디프시티(2부리그)에서 뛰던 김보경은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자 지난달 6일 위건으로 이적했다. 팀을 옮기고서 한 달도 채 안 돼 김보경은 시즌 첫 득점이자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김보경이 골 맛을 본 것은 2013년 11월 2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최근 3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한 김보경은 새 팀에서 6경기 만에 골을 넣으면서 위건 내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

위건은 김보경의 선취골 이후 후반 22분 해리 맥과이어, 후반 34분 제임스 맥클린의 골이 연속으로 터져 3-1로 이겼다.

◆ 기성용 풀타임 뛰며 승리 지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에서 뛰는 기성용(26)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 승리를 도왔다.

스완지시티는 이날 2014~2015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번리와의 원정경기에서 1-0으로 이겼다. 잉글랜드 무대에서 100번째 경기를 소화한 기성용은 선발로 나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0-0 균형을 무너뜨린 것은 번리의 자책골이었다. 후반 19분 스완지시티 문전 혼전상황에서 페데리코 페르난데스가 찬 슛이 번리 수비수 키런 트리피어의 몸을 맞고 그대로 골라인을 넘었다.

이청용(27)이 뛰는 크리스털 팰리스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에서 3-1로 이겼다. 1월 아시안컵에서 정강이뼈를 다친 이청용은 지난달 3일 볼턴(2부리그)에서 크리스털 팰리스로 이적했지만 부상 탓에 새 팀 데뷔전을 아직 치르지 못했다.

◆ 손흥민 풀타임…김진수·박주호 맞대결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손흥민(23·레버쿠젠)도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승리에 힘을 보탰다.

손흥민은 프라이부르크와의 2014~2015 분데스리가 23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지난달 14일 볼프스부르크와의 21라운드에서 해트트릭을 폭발하며 정규리그 6~8호골, 시즌을 통틀어 12~14호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후 정규리그 두 경기째 득점포를 쉬어갔다. 하지만 레버쿠젠은 전반 33분 나온 지몬 롤페스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 1-0으로 승리했다.

호펜하임과 마인츠의 경기에서는 김진수(호펜하임)와 박주호(마인츠)가 모두 선발로 나서 맞대결이 펼쳐졌다. 김진수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2-0 승리에 힘을 보탰고, 박주호는 중앙 미드필더로 후반 32분까지 뛰었으나 패배를 막지 못해 희비가 엇갈렸다. 구자철(마인츠)은 벤치에서 시작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부름을 받지 못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공격수 지동원은 헤르타 베를린과의 원정경기에서 0-0으로 맞선 후반 38분 라울 보바디야와 교체 투입돼 경기를 끝까지 소화했다. 그러나 아우크스부르크는 후반 43분 살로몬 칼루에게 결승골을 얻어맞고 0-1로 졌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잉글랜드 스완지시티에서 뛰는 기성용(왼쪽)이 1일(한국시간) 열린 번리와의 2014~2015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풀타임 활약했다. /AP 연합뉴스

'코리안 골퍼' LPGA 돌풍 ~ing

양희영 혼다 타일랜드 우승…4연속 정상

'코리안 골퍼'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개막전부터 4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양희영(26·사진)은 1일 태국 촌부리의 시암 컨트리클럽 파타야 올드코스(파72·6548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혼다 타일랜드(총상금 150만 달러)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의 성적을 낸 양희영은 2013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하나·외환 챔피언십 이후 17개월 만에 개인 통산 2승째를 거뒀다.

13언더파로 공동 2위인 이미림(25·NH투자증권), 펑이니(대만),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와는 2타 차이를 냈다.

우승 상금 22만5000 달러(약 2억4700만원)를 받은 양희영은 시즌 상금 41만2358 달러로 상금 선두에 나섰다.

이로써 코리안 골퍼는 LPGA 투어 개막전 코츠 골프 챔피언십에서 최나연, 두 번째 대회 바하마 LPGA 클래식에서 김세영, 호주여자오픈 리디아 고에 이어 4개 대회 연속 우승으로 동풍을 이어갔다. /김민준기자

FC바르셀로나의 루이스 수아레스가(왼쪽)가 1일 프리메라리가 그라나다전에서 후반 결승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수아레스 1골1도움·메시 쐐기골

바르셀로나 3-1 승

루이스 수아레스의 1골 1도움, 리오넬 메시의 추가골로 바르셀로나가 하위권의 그라나다를 격파하고 선두 레알 마드리드 추격에 박차를 가했다.

바르셀로나는 1일(한국시간) 스페인 그라나다의 누에보 로스 카르메네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그라나다와의 2014~2015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5라운드 원정에서 3-1로 이겼다.

전반 25분 이반 라키티치의 선제골로 앞서간 바르셀로나는 후반 3분 수아레스의 결승골이 터진 뒤 후반 8분 추격골을 내주며 잠시 주춤했지만 후반 25분 수아레스의 도움에 이은 리오넬 메시의 쐐기골이 터지면서 2점차 승리를 결정했다.

이날 터진 바르셀로나의 3골 모두 직·간접적으로 수아레스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바르셀로나는 전반 25분 수아레스가 강력한 왼발 슈팅을 시도해 볼이 수비수에 막혀 흘러나오자 쇄도하던 라키티치가 가볍게 오른발로 득점에 성공하며 앞서 갔다.

후반 3분에는 수아레스가 라키티치와 1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뽑아냈다. 이어 후반 25분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고 침투하던 메시에게 패스를 연결해 메시의 쐐기골을 도왔다.

27호골을 터트린 메시는 득점 선두 호날두(29골)와의 격차를 2골로 줄였다. /김민준기자

김성근 감독 이번엔 '바구니 타격'이요!

망치·라켓 이어 이색훈련

한화 이글스의 막바지 스프링캠프가 한창인 지난달 28일 일본 오키나와 야에세 고친다구장에서 이색 장면이 포착됐다.

외야수 황선일(28)이 야구공을 담는 노란색 바구니에 쪼그려 앉아 타격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그라운드에서 타격 훈련을 하는 선수들과 달리 황선일은 타격을 할 때면 먼저 바구니를 배터박스에 놓고 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공을 때렸다.

'바구니 타격'은 한화 김성근 감독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감독은 "황선일이 타격할 때의 보폭이 너무 크더라"며 "양쪽 다리 사이를 좁히려고 바구니 속에서 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폭을 좁히면 상체의 앞뒤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고, 타격할 때 허리의 회전력을 높일 수 있다. 바구니에 들어가면 그 폭 이상으로 다리를 벌릴 수 없어 자연스럽게 양쪽 다리를 좁히게 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커다란 망치를 이용해 타자들의 힘을 기르고, 배드민턴 라켓을 휘두르며 투수들의 밸런스를 교정하는 등 독특한 훈련을 자주 선보여 온 김성근 감독의 또 다른 아이디어인 셈이다. /김민준기자

한화 외야수 황선일이 지난달 28일 오후 스프링캠프가 차려진 일본 오키나와현 야에세의 고친다구장에서 배팅할 바구니에 앉아 타격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